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가유산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유산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궁능
유적본부|국가유산진흥원|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일시 2025년10월16일(목)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궁능유적본부, 국가유산진흥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허민 청장과 소속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땅과 삶에 새겨진 유형·무형의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유산청과 그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유산청과 그 소관기관들은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록화와 공공데이터 개방을 병행해 활용 폭을 넓히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우리나라가 차기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되는 값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음에도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사이의 충돌 문제, 지역 간 문화유산 관리역량 격차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오늘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들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허민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15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허민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운영지원과장 김용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이귀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 **위원장 김교홍**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허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는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그 밖의 소속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민 청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세 달 동안 전국의 국가유산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또 새롭게 개척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본 국정감사는 국가유산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시간인 만큼 저를 포함한 국가유산청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황권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이종희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김용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입니다.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입니다.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입니다.

이귀영 국가유산진흥원 원장입니다.

곽창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국민과 지키고 누리는 국가유산, 함께하는 미래라는 비전을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체계 확립,

함께 누리고 즐기는 열린 국가유산,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헤리티지 세계화 등 4대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유산 5개년 보호계획을 최초로 시행하고 문화유산 보존·활용 5개년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무형유산 분야는 다양한 전승자를 충원하기 위해서 전승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문화·자연·무형유산 분야별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확산하고 국가유산 산업의 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가유산 보존·복원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11월까지 제2차 국가유산 분야 R&D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부터는 AI 기술을 적용한 신규 R&D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디지털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에 보급하여 연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똑똑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국가유산과 국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규제 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지난 2월에 시행되었고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시 국가유산청과 사업시행자, 자문단으로 구성된 발굴현장 합동지원단을 운영하여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갱점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 황리단길 등 국가유산청이 지원해 온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고도 지역 이외에도 전국의 9개 역사문화권과 사적·명승지 등 국가유산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서 각 지역이 국가유산을 통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안전하고 포괄적인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미흡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등 재난·안전관리 정책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에는 초동대응반을 즉시 구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긴급 복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긴급보수비를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존 및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신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50년 미만의 예비문화유산도 적극 찾아내서 국가유산의 외연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의 보수정비와 궁능 복원을 통해서 국가유산 가치의 진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자연유산은 동·식물유산, 명승·전통조경, 지질유산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맞춤형 분야별로 보존·관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자연유산에 특화된 연구와 조사, 전시·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유산법에 근거하여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유산 유형별로 식물보호분야 품셈 개정이라든가 명승 지정기준과 분류체계의 정비, 전통정원 표준모델 개발, 매장·지질유산 보호법 개정 등 그동안 미흡했던 자연유산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유산 전승 안정화와 창조적 계승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보유자의 도제식 교육 이외에 대학의 공교육을 통해서 청년 전승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보유자 충원이 어려운 종목에 대해서는 대국민 공모로 예비 전승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승취약종목의 전승공예품 제작·활용하고 전통재료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전승 여건이 되도록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함께 누리고 즐기는 열린 국가유산’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K-컬처에 대한 국내외 인기는 경복궁 연간 관람객을 바티칸 박물관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세계적인 열풍은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도 급증시키며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에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방문캠페인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지역관광을 견인하고 VR, AI로 융합된 실감형 콘텐츠를 국내외에 보급화해서 K-헤리티지의 매력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가치를 선도하고 방한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경복궁 내 문화상품관 조성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덕수궁 돈덕전에서는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을 개최해서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향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궐행사를 정책 수혜대상에 맞게 다양화하여 국가유산 복지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이동형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가꾸고 전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인재들의 지킴이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EBS 등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인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반구천의 암각화와 제주4·3사건기록물,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각각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하여 제48차 위원회가 내년 7월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K-헤리티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문화국격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2018년 이후 중단된 고려궁궐 만월대 공동조사 등 문화유산 분야 남북협력 사업 재개를 위해서 통일부 등과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K-헤리티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유산에 대한 다국적 연구를 지원하고 문화공정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산을 주제로 한 영문도서나 미디어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해외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글로벌 홍보를 위해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소재유산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글로벌 특성에 맞춰 전략적 환수를 추진하고 환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는 소재국과 협력을 통해서 현지활용을 확대하여 우리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에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관월당이 국내로 돌아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한국전통정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제 문화유산을 넘어서 한국의 자연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K-헤리티지의 가치를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과감한 내부 혁신을 통해서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공정·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여 국민께 신뢰받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김교홍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오늘 국정감사는 국가유산청 외에 또 국가유산청 산하 기관 6개 기관이 지금 같이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양당 간사들께서 협의 하셔 가지고 국가유산청 이외 산하 기관들은 단말기 보고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늘 국정감사를 지켜보다 보면 산하 기관 종인들이 참석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국정감사 기간 이외에 우리가 직접 그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의 현안을 사실 파악할 그런 시간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한 3분씩 정도라도 오후에 간단하게 그 기관들의 현안에 대해서 그 기관 대표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6개 기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씩 하더라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후 국감 시작할 때

먼저 그렇게 듣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견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양 간사께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후 국감 때 첫 번째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형배 위원님.

○ 민형배 위원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상황이 아주 염증합니다.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고 어제 저희 민주당도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을 구성해서 파견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이 문제를 푸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문체위도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 관련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감사 대상인 국가유산청도 캄보디아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3명이 파견돼 있고요. 또 저희 문체위 소관인 세종학당도 캄보디아에서 5개소, 스렁, 시엠레아프, 포이펫, 프놈펜 1·2 등 5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 인력 30여 명이 현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모든 문체위 소관 기관에게 캄보디아 현지 파견 내지는 활동 사례를 전수 점검해서 그 결과를 저희 국회에 가능한 한 조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상연락 체계가 상시 가동되고 있는지 또 안전관리 대책에 다른 허점은 없는지 즉시 점검해서 이것도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감은 국가유산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침탈·농락했는지, 사유화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9월 3일에 종묘 망묘루의 비공개 차담회랄지, 같은 날 종묘 영녕전 신실을 들른달지 또 2023년에 덕수궁 석조전, 창덕궁을 방문해서 개인적인 그런 일정을 갖는달지 또 같은 해 4월에 보스턴 미술관 사리구 반환 과정이나 청와대 상춘재 오찬 간담회까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를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여러모로 제기됐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이, 감사가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제대로 확인하려면 당시의 국가유산청장인 최웅천 전 청장, 당시의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인 신수진 비서관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빠져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으면 종합국감 때라도 이분들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신수진 행정관은 채택이 돼 있지 않나요? 지금 돼 있어요, 그건 돼 있고.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캄보디아 현황과 거기 비상연락망 상황 체크는, 여기 지금 문체부에서 공무원들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 문체부에 전달을 해서 이번 종감 때까지 이 자료를 보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종오 위원님.

○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지난 두 차례나 증인 채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

렸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빙상 사태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 상당히 편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체위에서 개선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도자 그리고 선수가 받게 될 상황이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이수경 회장과 박세우 전무이사를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께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다른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 진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장, 전무는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진종오 위원 전무는 되어 있는데 이수경 회장과 함께.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전무는 돼 있는데 회장에 대한 증인 문제는 여야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이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국정감사 자리인데 준비 잘하고 오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열심히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본 위원이 21대 국회에 13개의 세트 법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을 국가 유산청으로 승격시키는 데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가유산청이 지금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문화를 더 잘 알리고 계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빨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현진 위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공룡 전문가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으세요, 유산 청장 하시기 전에. 그런데 국가유산청장은 지질학자이거나 공룡학자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을 포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특히 국가유산청이 되면서 많은 자연유산, 본인 전문 분야이신 것까지 포괄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장 허민 유산청장의 일은 문화·자연·무형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제가 유네스코 위원 역할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에 세 계화하는 데도 하고요.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유산청이 그냥 보호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또 하기도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이 예산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공정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책임감 알고 있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엊그제 혹시 문체부장관과의 질의 보셨습니까? 모니터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봤습니다.

○**배현진 위원** 본 의원실의 제가 수의계약들이, 그동안의 사업들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던 중에 어떤 특정 업체가 제게 왜 지위를 이용해서 소기업을 괴롭히냐고 아주 황당한 사과 요구를 해 와서 지금 문체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파악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자료요구 대상 중에는 유산청 산하의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 먼저 하나 띄워 드릴게요. 청장님 그것 파악은 나중에 하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2개의 사진은 다른 사진이거든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2개 회사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어떤 남성분의 D사의 홈페이지와 그의 배우자인 여성분의 S사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달라 보이세요, 같아 보이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비슷합니다.

○**배현진 위원** D사는 2005년에 설립됐고요. S사는 2020년에 설립됐습니다. 말하자면 부부 각자가 다른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홈페이지는 똑같지요? 거울처럼.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우리 국가계약법상에 여성기업 특례제도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일반기업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불가한데 여성기업은 2000만 원 초과, 1억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파악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성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2000만 원에서 1억입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그런데 이 두 업체를 제가 왜 살펴봤냐면 20년부터 유산청의 소속기관과 30개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D사는 17건, S사는 여성특례기업 특전을 받아서 12건을 포함한 13건을 계약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짹쓸이하다시피 2020년부터 설립된 이 회사에서는 사업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론 많은 사업을 했다고 무조건 범죄혐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그래도 많이 했지요, 청장님 보시기에도?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다음 거 보시지요.

올해 아내 명의의 S사, 2020년에 설립된 회사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 맺은 수의계약 견적서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의 제출서를 보시면요 아까

그 남편이라던 D사의 대표가 임 모 씨거든요, 제가 성함은 가렸습니다. 이 임 씨의 대표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로 S사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역시 아내 명의의 S사입니다, 수의계약 체결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의 또 다른 수의 계약 체결인데 S사가 아니라 이번에도 남편 명의의 D사의 등기이사가, 또 그 회사의 담당 디자이너부터 담당자까지 D사 소속의 인원들이 이 계약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염연히 다른 회사인데 여성특례로 받은 이 S사의 계약에 왜 D사의 대표자의 이름과 이메일과 담당 실무진들이 등장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역시 아내 명의의 S사입니다. 이번에는 더 재미있어요. 채용공고인데요. 채용하겠습니까라는 근무조건을 걸고 근무지역이 남편 명의 D사의 사무실 주소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인력으로 두 회사가 다른 이름을 쓰면서 지금 유산청 산하기관들의 수의계약을 짜쓸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들이지요.

청장님, 어떠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저희들은 정부입찰·계약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배현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자료를 봤을 때 의혹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상당히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제가 엊그제 어떤 기관에서 이 보안사항인 감사 사실을 누설했는지 지금 찾고 있지만, 이 감사 누설로 의원실이 본인의 회사를 점검한다는 것을 안 순간 아내 명의의 S사 홈페이지가 폐쇄됐습니다, 곧장. 그리고 남편 명의의 D사 회사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S사의 과업들을, 본인 회사의 과업처럼 다 올려놨던 기록들을 모두 삭제하고 은폐시키는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굉장히 기묘한 행적들인데요.

이게 유산청 산하기관들이 수의계약 할 때 한 번, 처음 하는 회사도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몇십 건 가까이 이렇게 계약이 진행됐다면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이거 겹치겠거니라는 의심이 들 텐데…… 기관 수의계약 이거 제대로 해 온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청장님? 신임이시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로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의구심이 들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여성기업 혜택은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일구려는 여성들에게 우리가 공정 환경에서 좀 잘 해 보자고 말하자면 없는 특전을 주는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거 잘못 이용하면 여성 홀로 성실히 이용하는 다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권리를 박탈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허위계약을 진행하면 국가계약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본인들의 회사에서 발끈해서 더 특별히 살펴보게 된 이 두 회사의 건은 당연히 감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수의계약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청장님,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파악해서 감사 진행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위원** 처음 들어도 감사 진행해야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 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배현진 위원** 종감 전까지 이 사실관계 모두 파악해서 의원실에도 보고하시고요. 감사계획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허민 청장님, 종로에 종묘라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국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돼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까 그러시던데 국가유산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례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 알려진 것처럼 2024년, 작년이지요. 9월 3일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갖습니다.

혹시 청장님, 차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차담회의 절차나 진행 과정은 다 보고받고 알고 있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말이 오가고 했는지.

○**민형배 위원**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님 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비공개 차담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를테면 농단한 현장이었다는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거기 출입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문을 엽니다. 경호처에서 ‘우리가 통제하겠다, 현장에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소방문 개방용, 그러니까 소방문으로 출입을 보통 하는데 리모컨을 아예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근무자에게 ‘초소 들어가서 블라인드 내리고 나오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체계에서 배제시킨 채로 거기서 차담회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필 본부장님,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했고 그 연락을 본부장님이 받으셨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때 문체비서관실 박 모 행정관한테……
- 민형배 위원 박 모 행정관?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민형배 위원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까?
- 양문석 위원 이름을 밝히세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박현경 행정관입니다.
- 민형배 위원 박현경 행정관?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여기는 이른바 늘공 출신입니까, 아니면 어공 출신입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제가 알기로는 늘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문화부에서 파견 간 공무원이었나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체부 규정을 보면 궁능유적관 안에서 장소 사용을 하려면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해야 되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제출했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하지 않았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안 했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민형배 위원 그러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가겠다 그러면 열어 줍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 사용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 민형배 위원 예외 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저희가 최종적으로……
- 민형배 위원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 본부장께서 판단하신 건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거고요.
- 민형배 위원 조금 이따 하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부인 까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 그다음에 차량 출입하려면 이것도 사전에 기록을 해야 되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민형배 위원 빠져 있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때 당일 날 경호처에서……
- 민형배 위원 빠라고 했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뭔가 좀 여러 가지 보안상의……
- 민형배 위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빠라 하면 그냥 뺏니까?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쪽에서 그냥 그런 걸 빼 줘도 됩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경호처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사실 요청을 하게 된 거라……

○ 민형배 위원 저거 봐 보세요. 보안상? 무슨 보안이요? 누구를 보안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부인을 보안하겠다는 겁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아무래도……

○ 민형배 위원 아니면 종묘를 보안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출입기록을 지난 10년간 봤는데 딱 예외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김건희 씨는 이해가 되세요?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해당된다는 해석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경호처에서 ‘관리자들, 우리가 통제할 테니까 현장 나오지 마라, 초소에 들어가서 블라인드 내리고 나오지 마라’ 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한 가지 더요.

CCTV 녹화도 이때 중단했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민형배 위원 이것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처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이것도 그날 저 행사 당일 날 경호처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본부장님, 경호처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종묘 관리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가, 윤석열의 경호처가 그렇게 국가문화유산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됩니까? 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지요? 무서웠습니까, 아니면 어떤 압력이 있었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압력이라기보다도 저희는 경호처에서……

○ 민형배 위원 자, 좋습니다.

동석자, 누가 참석했는지도 모르십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제가 소방문에서 영부인을 수행을 할 때, 제가 망묘루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사실 인지를 했었고 그 외에는 제가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외국인 두 분하고 김건희 씨하고만 같이 세 분이 차담을 한 겁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 종묘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침탈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문화유산청의 기본적인 방침 자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자였던 우리 이 본부장님은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있고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래 가지고 유산청이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것을 숨기려 했구나, 그 자체를 숨기려 했구나, 그래서……

1분만 더 주십시오.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구나, 저는 이 대목이 핵심이라고 봐요. 권력이 뭔가 거기서 못된 짓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이 대통령실의 이런 은폐, 김건희 씨의 이런 은폐 시도에 적극 가담한 게 진짜 더 큰 문제예요.

보세요. 종묘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데 여기에 보면 법적으로 규정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종묘 사용 협조가 있으면 그 기록을 좀 보내 줘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처음에는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다른 기록도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은희 위원님입니다.

청장님, 업무보고 9쪽을 보니까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관월당이 국내로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다고 그했습니다. 그 관월당 지금 어디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파주에 있는 우리 수리기술재단에 있습니다. 수장고 안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게요 청장님, 그렇게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대답하실 일이 아닙니다. 관월당 환수는 2010년에 이미 한일 불교계가 합의한 내용 아시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조은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수가 무려 15년이나 지연된 이유가 뭐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환수라는 것은 대개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요 유산청의 교섭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에 일본 측에서 10년에 합의하고 다음 해에 일본 측에서 환수 협의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교섭을 열심히 해야지요. 2016년부터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식 접촉 딱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16년 들어서야 서한을 송부하는 정도 그쳤는데요. 일본이 주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 되겠다고 한 그동안 유산청은 대체 뭐 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알기로는 고덕원이라는 그 사찰에서 서로 관계 때문에 잘 협상이 빨리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서한 한번 딱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상황에 물꼬를 튼 건 일본입니다, 우리 유산청이 아니고요. 2019년에 고덕원 주지가 먼저 반환 재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진전된 거 아닙니까? 유산청의 노력이라기보다 일본 측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수도 문제지만 환수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관월당 부재가 모두 국내로 반입됐지만 제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지금 해체된 상태로 수장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관월당이 일본에 있다는 거는 1997년에 벌써 알게 됐습니다. 소재가 파악됐으면 찾아와야겠다, 찾아오면 어디다 놔야 되겠다 연구했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어디 놓아야 될지도 모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 고증하고 연구하는 과정도 있고요. 환수에 대한 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금 상대방과 함께 여러 가지 상의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 태도로 국가유산청장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관월당 환수 받았다고 지금 성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연구…… 이게 97년에 소재 파악된 이후로 관월당을 어디다 놔야 되겠다, 본래 위치가 어디냐 연구용역 딱 한 번 하고 그 연구용역 결과도 자신 없는지 지금 수장고에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놓을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수장고는 뭐냐하면, 목재라는 건요 부패가 많이 돼서 그걸 가지고……

○**조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놓을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수장고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경복궁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수장고 위치가 아니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옛날에 사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질문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관월당 어디다 놓을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 지금 세 군데 중의 한 군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환수 계획, 환수 이후에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장고에 넣어 놓고 이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산청이 되찾았다 이렇게 성과를 자랑할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되살릴 것인가 구체적 계획을 내놓고 복원계획 언제쯤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재유물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그걸 다시……

○**조은희 위원** 그렇게 황당하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복원계획을……

○**조은희 위원** 언제, 어디에 갖다 놓을 건지 빨리 계획을 밝히라고 했는데 왜 딴 말씀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조사해서 바로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또요 올해 4월에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됐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은희 위원 왜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게 절차상 하자도 있고 이것이 가짜로서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보물 지정될 당시 절차상 하자라는 게 도난당한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도난품이라는 사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정할 때 저희들이 먼저……

○조은희 위원 잘못한 거 인정하셨으면……

○국가유산청장 허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건의 출처와 소장 계획에 대한……

○조은희 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 잘못한 직원들 정계할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좀 더 조사하고 출처 및 경위를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좀 더 조사하고 경위를 파악하다니요? 잘못했다면서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기본적으로 그때 문화재위원들도 계셨고 그분들과 함께……

○조은희 위원 도난당한 거인 줄 알면서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부된 거고요.

그런데 유산청 도난 국가유산 정보, 화면 보면 2011년에 대명률이 도난됐다고 공고하셨습니다. 98년 4월에 도난됐다고 시점도 공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도난된 걸 알면서도, 도난된 거를 신청하면 취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벼젓이 신청해서 취소당하는 거, 그게 유산청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어떻게, 초등학생도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대명률이 관계 전문가 조사, 유산청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검토 이루어 졌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은희 위원 그 검토에서 도난물인 거 왜 몰랐습니까? 검토는 그러면 눈 감고 검토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당시에 사진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에 있었는데……

○조은희 위원 그것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사진 자료 없으면 도난품인 거 다 등록돼 있는데도 도난품 아닌 걸로 보물로 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된장입니까?

내부적으로요 확인도 하지 않고, 굉장히 중대한 과실인데요.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경위 조사나 징계조차 없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 공무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징계조치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공주·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 제가 청장께서 제출하신 자료 2025년도 주요 업무현황의 61쪽에 보면 202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제1번 ‘조직개편으로 신라왕경 추진단은 존치하나 백제왕도추진단은 폐지한 것과 관련하여 백제왕도추진단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된 이 작년도 국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관한 조치 사항에 보니까 ‘완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작년 5월에 국가유산청으로 편제 개편되면서, 그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조치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에 대한 의지가 제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문화권, 고도,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 유적 등을 총괄 관장하는 역사유적정책관을 24년 12월 31일 신설함’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의지는 평가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등이 주장하고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있었던 백제왕도추진단을 폐지하였는가를 지적하였고 그것을 복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국가유산청 제일 앞의 기관 현황에 보면 역사유적정책관, 신설된 정책관 밑에 신라왕경추진단은 버젓하게 그냥 살아 있는데 거기에 백제왕도추진단은 폐지하고 여기에 역사문화권과를 신설하였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조치 완료로 보고했어요. 신라왕경추진단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폐지된 백제왕도추진단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을 역사문화권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조치 완료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말……

○**박수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 백제고도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임무, 의무가 지금 절실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근거 법률도, 전담 조직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조차 본 위원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추진단의 근거였던 총리훈령까지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PPT를 보시겠습니다만 현재 조직이 고도보존육성팀 내에 백제왕도계 이렇게 축소되어 있고 백제왕도추진단 시절에 문화재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이지요. 직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이던 인력이 이제는 국가유산청 소속 직원은 단 1명도 없이 지자체 파견 직원 달랑 5명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 근거한 이 법정 조직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직원 4명 총 1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제왕도유적 복원이나 이 사업은 속도가 영남패권 시대, 정치적 이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속도가 이렇게 수십 년 쳐져 있는데 아직도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자체에서 파견된 직원 달랑 5명 가지고 그동안에 떨어졌던 이 속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특별법을 발의해 주셔서, 특별법하고 그다음에 총리훈령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

게 된 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청장님, 그래서 제가 어제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지자체 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서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 저는 국가유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도 어떤 지역 감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신라이든 백제이든 이것을 정말 가치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우리가 찾아내고 세계인에게 우리의 정신을 알리고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고대사,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청장에게 이 분야에 대한 노력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당부하는데 청장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느 균형적인 그런 감각으로 또 전 나라가 하나의 유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셔서 그 특별법을 가지고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유관기관, 특히 행안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청장,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것 보이십니까?

(도자기를 들어 보이며)

여기 좀 봐 주세요. 이게 뭐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분청사기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이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의 줄임말이고 작년 국감 때도 본 위원이 말을 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수현 위원** 이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대 도예의 거장으로 인정받는 버나드 리치도 현대 도예가 나아갈 길은 이 분청사기가 이미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한했을 때도 바로 이 분청사기를 기념물로 드린 것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최용천 전 청장은 바로 이 분청사기를 세계유산 등재에 앞장서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에 등재를 하고 두 번째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달성하고 세 번째, 비로소 세계유산 등재가 되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 우선 1단계 예비 잠정목록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 관련 연구조사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3억 원만 편성이 돼 있고 2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비 유산 잠정목록을 발굴하고 현재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요. 또 아울러서 공주가 중심이 돼서, 또 이 분청사기는 고풍이라든가 광주 충효동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공주 중심으로 좀 더 연속유산으로 해서 또 연구도 해 가면서 세계유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성실한 답변을 좀 더 해 보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하여간 공주가 분청사기가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님, 국가유산청이 이집트 디지털 혜리티지센터 구축 ODA 사업, 이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우리 문화유산 디지털 기술을 해외에 전수하고 협력 관계를 맺자는 취지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추진 과정을 보니까 전문성, 절차, 관리체계 모두가 부실합니다. 유산청은 ODA 수행 경험이 전무하지요. 그런데도 수십억 규모의 해외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그리고 감독과 수탁이 한 인맥으로 얹힌 구조적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2022년경에 유산청이 이집트 ODA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수탁기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였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 참여한 김충식 교수, 사업을 수주한 전통대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입니다. 이 사업 유산청 실무 담당이던 공달용 연구관이 후에 전통대 김충식 교수가 전임으로 재직 중인 전통조경학과의 조교수로 이직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원으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타당성을 만든 사람과 심사계획을 담당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 그런 구조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사업 수행 실태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전통문화대는 2024년도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받아서 3만 건 이상 기록유산 디지털화 DB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청에서 중간 점검을 한 결과 DB화 기자재 운송이 지연됐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실제로는 이집트 현지에서 장비를 렌탈에서 스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무상 공여하기로 한 장비는 현지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선적 사진 1~2장이 증빙의 전부인데, 다음 PPT 보시면 사업 결과 보고 때는 계약서에 디지털 스캔 파일 전체 제출 규정이 없다, 성과 파일 실물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청장님, 이것 정상적인 국비사업 진행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청장 되자마자 이것은 바로 자체조사 시켰고 현재 지금 감사 중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결국에는 장비 미운송, 대여장비 사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 은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혀위 성과 보고 및 배임 의혹까지 겹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중대한 게 바로 인적 구조인데요. 수탁기관 책임연구원인 김충식 교수, 이종욱 교수, 두 사람 모두 현재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활동 중이잖아요. 문화유산위원 단순 자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책, 예산, 사업 심의에 관여하는 공직 기구 구성원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그런데 이런 인사들이 유산청이 발주한 사업 수탁기관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심사하고 자기네들이 사업 다 따 가요. 실무자가 과연 제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을 누가 건드려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대 혁신하고자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사태 파악에 좀 나서 보고자 하니까 청에서도 능동적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요, 국외유산과는 회계감사를 병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감독 실패, 성과 조작이 결합된 복합 사안입니다. 내부 감사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 감사원 통보나 외부 수사기관 이첩 검토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할 걸로 생각도 합니다. 특히 전통대학이라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이 부적절하게 발견됐을 때는 철저하게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 정말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원 통보나 외부 수사기관 이첩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2025년의 사업 약정은 지금 현재 보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감사 끝나기 전에 동일 기관 재선정 없겠지요?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동일 기관 재선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이 국감이 끝나면 저희 차장 중심으로 일대 현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가서 정식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 기관이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감사종료 전까지는 어쨌든 재선정 절차는 전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님.

귀교는 국립대학이자 국가사업 수탁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수 두 사람이 유산청 문화유산위원 신분으로 수탁 책임과 연구 책임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총장님, 아시고 계셨어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내용상은 그런 부분들은 알고……
- 김재원 위원** 내용상 알고 계셨다고요? 이게 공정한 경쟁입찰입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적절하지 않다고……
- 김재원 위원** 총장님, 같이 가담하신 것 아니에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알고 계셨다면서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문화재 위원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문화재 위원인데 그 사업 수탁을 받으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사업 선정은 국가유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청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 김재원 위원** 총장님조차도 공무원이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 기자재 운송 지연과 현지 장비 대여, 실물 스캔 파일 미제출, 주요 문제가 유산청에 제때 보고돼야 되는데 그것 관리책임자 총장님이시잖아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뭐……
- 김재원 위원** 내부 감사나 연구윤리위 차원의 사전점검, 사후검증 절차 진행하셨습니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지금 청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미리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미리 이상하다 싶으면 총장으로서 교수들을 관리·감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 본 의원실에 연구원 급여 횡령 의혹 제보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풀까요?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국립대학으로서 국가사업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총장으로서 교수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도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청장님, 이번 사안 단순히 행정 미비가 아닙니다. 감독기관의 관리 실패, 문화유산위원의 이해충돌, 수탁기관의 허위 보고와 배임 의혹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제협력 사업이 인맥 중심의 구조 속에서 왜곡이 되고 있어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타 부처처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 부속기관인 문화체육기술진흥센터가 연구 과제를 전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재지도 대전으로 갔습니다.
-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추가로 문화유산위원의 사업 참여제한 제도화, 수탁기관 성과 검증 프로세스 강화까지 세 가지 반드시 제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행계획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국능본부장 앞으로 좀 나오세요.

망묘루 휴관일 이용 불가 맞나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휴관일에는 이용은 가능한데 사용료가 좀 더……

○ 양문석 위원 일반인 민간인은 휴관일 이용 불가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공개 개인행사 금지시설 맞나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 양문석 위원 공부 안 하고 나오셨어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완전히 그 공간은 비공개 공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 양문석 위원 휴관일에 비공개 금지시설이에요, 유산청 자료에 의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와 그들이 들어갈 때 소방문으로 차량 진입 허용해 줬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위원 냉장고 반입했지요, 망묘루에?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냉장고.

○ 양문석 위원 형광등 교체했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위원 대청소시켰지요, 영년전에?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영년전……

○ 양문석 위원 정전 보수공사 일시 중단시켰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위원 CCTV 녹화 중단시켰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양문석 위원 관리직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배제시켰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의도적으로 배제는……

○ 양문석 위원 배석 없이 했잖아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차담회는 저희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난 가을 국감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모르는 체 했고 그냥 단지 그들이 들어가서 차담회 했다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국능본부장이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원실에 보낸, 법률 자문을 했던 내용을 보냈어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법률 자문?

대통령실의 위계로서 본부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협조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직권남용하여 궁능유적본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잘못이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쪽이 잘못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본부장 뭐 했는데요? 본부장 책임 없어요?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은폐한 것뿐만 아니고 당일에 이 엄청난 사건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본인 책임 없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당신들이 법률 자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개나 소나 때린다고 대통령실만 때려요? 당신들이 잘못 한 것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해? 그것마저 숨긴 거예요, 법률 자문도?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사용료 왜 요구, 부과 안 했어요? 요청 안 했어요? 사용료 얼마예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사용료 관련된 건 일단 지금 현재 특검 조사가 사실 진행……

○**양문석 위원** 특검 조사는 한참 뒤의 일이고, 작년 정기국회가 내란 사태 이후예요? 작년에 뭐 하고 특검 조사 운운을 해?

사용료 부과 왜 안 했어요? 견적 냈어요? 견적 얼마예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지금 망묘루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양문석 위원** 이것 보세요!

정해진 시간이 한참 오버됐고 시간당 계산하고 있고 외부 시설 사용했고. 장난쳐요, 지금? 견적서도 안 나와, 사용료 부과도 안 해. 국능본부장, 장난치려 왔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양문석 위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체 조사했어요? 자체 조사했냐고! 이것도 특검…… 자체 조사 안 했지요? 본인이 연루가 돼 있고 최고 간부가 연루가 돼 있고 청장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 안 한 것 아니야. 그렇지요?

공의감사 청구했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양문석 위원** 청장, 들어가자 마자 얼마나 했어요, 들어가신 지?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7월 17일 부임하자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저희들 자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감사원 청구를 막 의뢰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특검이 시작되어서 일단은……

○**양문석 위원**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 및 징계 문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청구해야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김건희 고소·고발 해야 되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양문석 위원** 특검과 상관없이 유산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되겠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특검은……

○ **양문석 위원** 보세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작년 문체위 긴급현안질의 12월 20일에 최웅천 당시 청장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 사적 사용 맞냐고 임오경 위원이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미 사적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백하게 당시에 청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의 본부장이 시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또 딴소리를 해요? 명백하게 범죄행위가 일어났는데.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잘못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것 바로 안 잡으면 다음 정권 또 다음 정권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징계가 정확하게 일어나고 수사 의뢰가 되고 여기에서 법적 조치로 막아야 어떤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명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만들려고 그래? 청장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일단은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궁능본부장은 임기가 정해진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문석 위원** 거기의 결과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를, 자체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고 징계해야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자체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특검 때문에 좀 전에 말씀……

○ **양문석 위원** 그리고 최웅천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고소·고발하고, 그걸로 갖다가 지금 유산청장이 책임지고 공식적으로 유산청의 입장으로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실 겁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고소·고발하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심야에 종묘뿐만 아니라 덕수궁, 창덕궁까지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일에, 사적지나 유적지는 국민들 것이지 개인 특정 계층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그것 명확하게 해야 되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법적으로 물을 것은 묻고 또 공무원들 잘못의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려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허민 청장께서 분명히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재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특검 진행과 함께 결과를 보면서 지금 조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고 국가유산청장으로서 국가의 유적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후대들에게 계승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타난 사적 유용의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유산청장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국가유산청은 거기에 대해서 맞게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피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청장님, 7월 달에 보직 오시고 나서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현안 중에 가장 주요 현안으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 행사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첫 개최, 부산에서 열리는 거지요. 26년 7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이 회의가 196개 협약국 대표단,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3000명에 실무진까지 합하면 1만 1000명까지 부산을 방문해서 참석하는, 아마 국제적으로 큰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으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 과정을 보면 출발부터 빼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유산청이 확보한 예산 하나도 없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현재 올해 예산은 예비비……

○**정연욱 위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원래 당초 계획상에서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이것 준비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밝히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7월 달에 위원회가 통과되면서……

○**정연욱 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금 관련 예산 하나도 없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지금 올해 예산에는.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 과정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지금 다른 예산으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것 다른 예산이 부산시에서 5억 2000을 겨우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부산시의 예산도 있고요. 이미 저희들이 임시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확보한, 지금 유산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고 부산시에서 받은 것도 부산시 예산 5억 2000 그게 전부라고 저희가 유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겨우 지금 확보한 5억 2000 가지고 내년 7월 행사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준비기획단 출범하는 문제하고 부산시와 공적으로 MOU를 맺는 부분하고 모든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예상된 일정 지금 그게 전부 다 계획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공식적으로 준비기획단 발족하신다고 하지만. 저희가 좀 예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 약간 급조된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청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준비하시는 데 빠빠한 일정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엄청난 행사라고 주요 현안까지 언급하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국제적 행사입니다. 예산 한 푼도 없이, 그것도 지금 부산시가 5억 2000을 내겠다는 것은 겨우 홍보 정도 추진하는 겁니다. 실무적인 상당한 국제 고위급 인사들이 다 오는 것이고 이 행사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것 유치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이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시간을 날려 버리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예비비……

○정연욱 위원 지금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게 지금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임시 조직으로 해 가지고 출범하고 있고요.

○정연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시는 것 알고. 과연 그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비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을 하셨는지가 저는 묻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내년 1월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 일정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과연 그 일정 자체가, 실사단이 방문해서 과연 뭘 볼 수 있을지, 홍보 예산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겨우 부산을 알리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뭘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 올해 하반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정연욱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행사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물론 개최지가 부산이기는 하지만—임시 예산으로 선 집행한다? 이런 구조는 행사 위상, 이게 지금 그냥 부산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위상과 원칙에 맞지도 않고 이런 행사를 만들어 주관해야 될 국가유산청이 예비비 편성하든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사 수단을 동원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 행사를 놓고 얼마만큼 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이나 있는지, 행사 유치에서만 반짝하고, 파리에 가서 여러 가지 축포를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저로서는 유감스러운 겁니다.

이어서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파리에서 부산을 유네스코 국제 유산위원회 행사 개최지로 확보하는

동시에 반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7월 12일 날 울산의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등재 일주일 만에 집중호우로 반구대가 침수됐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그리고 37일 동안 그 소중한 유산은 수면 아래 아예 잠겨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그 사이 이 근처 계천, 대곡천 일대는 농조가 번지고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반구대 암각화 보존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요 기관 간이나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청 자체가 갖는 게, 저희가 받은 유산청의 자료에서는 ‘유산청은 기록할 수 밖에 없다’,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부처·기관·지자체 간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방안들을 추진 중이고 그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집중호우라는 게 정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육칠 월 되면 항상? 내년 7월에 유산위원회 이것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장마철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잠길 것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럴 수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유네스코 국제 유산위원회의 멤버들이 와서 제일 먼저 어디 가겠습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는 것을 보여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이 유산 등재를 가지고 우리는 축포를 올렸습니다, 역사적 쾌거라고도 했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키지 못하면 자격도 빼긴다는 몇 가지 증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다리를 건설하다 보니까 경관의 결점이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2009년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리버풀 역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유산의 진정성과 경관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21년에 세

계유산 목록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내년에 방문하는 유네스코 멤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반구대가 다음 차례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반구대 암각화 자체가 세계유산으로 우리는 어렵게 올려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먼저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단은 예비비로 올해 책정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계유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작업 중에 있고요.

○**정연욱 위원** 그러면 바로 편성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리고 반구천 암각화 문제는 실로 저도 제일 걱정 많이 한 부분이고 이미 2010년부터 반구천 암각화가—저도 참여했습니다만—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에 대한 갈등이 결국은 약 19만t의 물을 울산시에서 주는 것은 문제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환경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지금 여수로 댐을 만드는 것이 과연 5년이나 걸려서 저도 지난번에 8월 1일 날 현장에 즉시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그래서 그 심각성을 논의했고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도로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할 때 이런 갈등유산과 유형유산에 대해서 한 샘플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먼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반구천 암각화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물론 2021년에 국무총리 주재로 현안점검 회의에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저희 청이 했었는데 그 결과는 다른 곳에다가 댐을 만들자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지금 5년 이내 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환경부 입장은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 봐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당장 세계유산위원회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방법론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수문을 계속 터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집트 아스완 댐같이 유적지를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보호해야 되는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제적 망신을 안 당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 병의 준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국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양 문제, 산양의 집단 폐사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산청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천연기념물 산양의 뼈죽음을 막고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국회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작년서부터 국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약 3000km에 달하는 ASF 차단 울타리,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지요. 이게 생태계를 단절시키면서 개체 확인되었던 2000여 마리의 산양 중에 약 절반에 가까운 1022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태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고 유산청에서도 보완대책을 하면서 적어도 작년, 올 겨울에 확인되는 폐사 개체수는 46마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2배 정도 획기적으로 감소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현재 울타리의 44개 지점을 부분 개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양들이 부분 개방된 틈을 타서 저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그리고 정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것을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등 핵심 구간의 ASF 울타리부터 철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방역의 포기가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방역체계로의 전환입니다. 방역과 생태 보전을 함께 이룬 균형 잡힌 해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산양 천연기념물의 관리·보호의 주체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의 핵심 구간의 울타리 철거를 더욱더 과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식사하고 오면 볼 수 있는데 ‘야생의 증언’이라고 하는 천연기념물 산양 사진전이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와서 사진전 직접 관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오신다고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도 오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가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좀 아픈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SBS하고 취재한 종묘 차담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망묘루하고 다른 23년도 이야기입니다. 23년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둘이 똑같은 형태로 해서 종묘에 방문을 했습니다. 종묘를 비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전하는 것은 종묘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공사는 약 5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대통령비서실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이 정말로 이런 공사를 격려하려고 하면 공개 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비공개 행사를 한 후에 사진을 사후에 공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조치 다 하지 않았어요. 숨겨 놨었습

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가 이번에 잘 아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분은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의 당사자여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이것도 작년 국감 때 저희들이 그렇게 찾았지만 유산청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건희가 누구입니까? 나토 순방 목결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그리고 금거북이까지 이렇게 뇌물을 받고 일종의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한 분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이고 엄벌에 처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남편을 먼저 보내 놓고 비밀리에 차담회를 계속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 나누었는지 혹시 유산청 유산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은 아는데……

○**이기현 위원** 본부장님, 저 뒤에서, 23년입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때는 제가 현직에 없어서 사실은 정확한 상황은……

○**이기현 위원** 그 뒤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번 국감 앞두고도 확인 안 하셨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의원 요구 자료 때문에 많이 제가 좀 확인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좀 서 계세요.

이 일을 확인하면서 저희가 놀랐습니다. 24년 국감 때는 24년 것만 밝혀졌는데 저희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국감에서 23년도 종묘의 사적 사용이 또다시 한번 밝혀진 겁니다. 그것도 뇌물 제공자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한, 윤석열도 같이 갔습니다. 윤석열 퇴장 이후에도 김건희, 이배용은 계속 그 자리에서 차담회를 이용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유적본부장님, 제가 정말 한마디 더 드리는데 제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유산청이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윤석열 임기 짧은 3년 동안, 그 짧은 기간에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 특정해서, 그리고 고궁의, 문화유산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자료제출 전체를 요구했는데 24년도, 23년도 이외에 두 번…… 저희한테 한 번 실토했던 거지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맞지요, 첫 번째로?

기조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런데 언론보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께서 이거 말고 영녕전 신실까지 방문했던 사실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보도되니까 유산청에서…… 저희가 항의했지요. 저희가 항의했지요, 기조실장님? 안 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항의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뒤늦게 ‘영녕전 신실 개방 내용이 누락됐다, 추가 보완하여 자료를 제출할 테니 양해 부탁드린다’, 국회 국정감사 기능을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청장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자료를, 저희가 유산에 대한 전체 이용객들의 이름과 성명과 그리고 방문 일시를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기간, 특정 인물에 대해서, 특정 장소에 대해서 특정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능멸해도 됩니까? 그리고 양해를 구한다고요? 이게 국정감사에 임하는 유산청의 태도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수많은 자료가 와서 제가 그건 미처 체크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청장님, 청장님의 저 뒤에 계신 우리 훌륭한 공직자들 저희를 잘못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 해 봤지만 이렇게 빤히 들킬 이야기들을 국정감사 바로 앞두고까지, 밝혀질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영화 ‘파묘’라는 작품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봤습니다.

○**이기현 위원** 파묘될 때마다 인정, 나오면 인정하는 겁니다. 묘에서 꺼내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지난 국감 때, 작년 국감입니다. KTV에서 황제관람이라고 하는 김건희의 청와대 사적 사용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질의할 때 황성운 기조본부장 그리고 유병채 그 당시의 소통실장이 저희한테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사안이 밝혀질 때마다 딱 하나하나 그 포인트만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재하는 회의마저도 부인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 감사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겁니다.

청장님,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아프시더라도 살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능멸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와 국회를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 동의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 앞에 사진 좀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진만으로는 좀 어렵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기 태릉 쪽 아닌가…… 여기는 경주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왼쪽 사진은 아이가 경주의 신라 고분 위로 올라가 있고 아래에서는 부모로 되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동영상은 찍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경주에서 열린 축제인데 보면 벤치나 고분 가장자리에서 흡연하거나 그냥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운 이유는 APEC이 경주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진종오 위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 아무래도 문제가 제기될까 봐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도 많이 있는데 보면 고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고 주차도 하고 있고 골프도 치고 있고 그리고 액자 걸기 위해서 못을 박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거 문화재 훼손으로 보이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진종오 위원 그리고 6월에는 또다시 골프를 치는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몇 건 중에서 처벌한 건은 2건 정도는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예, 2건은 고발 조치하신다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 아무래도 우리가 APEC 관련해서 이런 게 좀 청장님께서 사전에 준비하시고 대비하시면…… 아무래도 APEC이라는 위상을 청장님께서 함께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래서 다음 종감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도 저희들이 순찰 강화하고 안내판 설치를 다시 또 보고 있고요. IoT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현재 지금 체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가장 핵심적인 책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 진종오 위원 예, 맞습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 들어 보셨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춘천 말씀하시는가요?

○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중도유적지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진종오 위원 지금 이 중도유적지, 중도를 보면 거기서 고인돌, 집터 그리고 마을을 들려싼 환호 등 선사시대 마을 전체가 출토돼서 학계에서 고고학계의 보물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13년부터 23년, 10년에 걸쳐서 발굴 조사하는 와중에 지석묘와 환호 등 유구가 3000여 점 그리고 청동기, 금속기와 토기 등 유물이 8000여 점, 총 1만 4000여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들 지금 어디에 보존되어 있습니까, 청장님?

○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는 보호구 안에, 보호시설 옆에 되어 있고요. 그걸 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호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지어져서 지금 문제입니다.

○ 진종오 위원 그건 지금 다음 질문에 나올 답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국립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 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유구들, 보시면 대형 유구들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데 방치되어 있어요, 10년간. 왜냐하면 아까 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유적전시관, 유적공원을 올해 9월까지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안 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현재 디폴트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존조치 이행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계획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산청은 단지 그저 고소·고발조치만 하고 법적 조치만 하고…… 추후에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저희들이 담당 국장 중심으로 직원들이 몇 회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런데 보호시설이나 그다음에 안에 있는, 주로 비닐하우스가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유구의 유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원래 계획대로 센터를 빨리 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레고랜드라든가 중도 문제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법적 조치 취하실 건데, 보면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산청에서는 얼마 드렸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연장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하고요.

○**진종오 위원** 1년간 연장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1년간 연장하셨는데, 보면 중도개발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싶은 데 도비 또한 어렵고 그리고 부지를 분양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지 분양 또한 좀 불가능해 보이는데 저는 청장님의 국가유산청장님이신 만큼 결단을 내려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것은 그냥 그저 법적 조치만 취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장하셨으니까 1년 연장 끝나기 전에 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좀 오래된 이야기로 계획을 봅니다마는 일단은 레고랜드가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레고랜드 사업에 의해서 옆에는 우리가 보존센터를 지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 옆에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다시 한번 더 이행하겠고 경제성이란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검토해 봄아 될 사항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내년 되기 전까지 좀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유산청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지난 일인데 철원에 있는 고석정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 국가유산청장 허민 들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알고 계십니까? 철원의 고석정 꽃밭.

○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 들었는데 확실히 지금……

○ 진종오 위원 이 고석정 꽃밭이 전체 면적이 7만여 평이고 그리고 꽃밭만 4만 평 정도 되고, 4만 평이라 하면 축구장 33개 규모인데 매년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관광객이 오는 매우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철원군이 고석정 꽃밭…… 문제점 모르시지요, 고석정 꽃밭 잘 모르시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 진종오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철원군에서 국방부로부터……

1분만……

국방부로부터 구석기 유적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무단으로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2016년 1월 철원군은 이 유적지에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지 않고 꽃밭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유산청은 4년이 지난 2020년에 제보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모르시는 사안이신 거지요?

이 매장문화재 유존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입니다.

○ 진종오 위원 유산청이지요. 보면 당연히 유산청과 관할 지자체, 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시 철원군을 대상으로 고발한 수사 결과를 보면요 철원군조차 유적지였다는 것을 인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산청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다가 제보를 받고 나서 4년 만에 인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철원군이 이 고석정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자자 유치 실패로 꽃밭을 조성한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광개발 목적으로 리조트, 파크골프장, 체육센터까지 유치하려 했으나 투자자 유치로 실패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가 들어왔으면 문화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그 유산의 범위를 아직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꼼꼼한 유산 관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장유산이 어느 정도 범위를 넓히지 않고, 사업자와 함께해서 그걸 범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범위를 보면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가능한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진종오 위원 청장님, 오후에 추가로 질의드릴 테니까 조금만 자료 확보해 보시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 만사건통 김건희, 김건희에 대한 특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조계원 위원** 바로 국가유산청입니다. 김건희가 보스턴 미술관에 방문해서 사리구 반환과 관련해서 작업에 나서고 그 작업을 국가유산청에서는 추켜세우면서 그런 행사를 또 베풀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가족 20명과 오찬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약속을 김건희가 했습니다. 김건희가 공식적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개인 신분입니다.

○**조계원 위원** 일반인 신분입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종로에서 차담회를, 지난번 종묘 차담회를 가셨던 것은 당시 초대한 인물이 예술의전당에서 전시회를 함께했던 미국인 화가 마크 로스코와 아들인 크리스토퍼 로스코 일행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이 전시회가 바로 김건희가, 이 전시회를 주관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코바나콘텐츠……

○**조계원 위원**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입니다.

궁능유적본부장님 나와 주시지요.

그날 당시에 직원들이 3명인가 더 추가로 나와서 수발했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 그 자리에 배석했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담회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차담회 자리 지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에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차담회 배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신실까지, 종묘 영녕전의 신실을 둘러볼 때 같이 동행했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거기 안에……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 신실이 어떤 곳입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영녕전 1실인데요. 태조의 4대조인 목조의 제1실 신실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영녕전 앞의 월대조차도 일반인들은 오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성시하는 곳을 마음대로…… 그걸 또 수행까지 했다는 말입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수행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막았어야 될 사람이 수행을 해요? 안내를 해요? 그러고서 대통령실 평계를 대요? 종묘가 무슨 카페입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시고요 또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서는 제가 이렇게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에 매진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건가요?

청장님, 물론 지금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철저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 보고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증인은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장님, 남명천화상송증도가 금속활자 인쇄본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직지심경은 그냥 인쇄본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거기는 금속인쇄……

○조계원 위원 그런데 중도가자는 고려의 금속활자까지 발견이 된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영상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 즉 고려 금속활자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지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이고 국가적인 경사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주조나 조판 같은 걸 비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한 그 조판이……

○조계원 위원 아니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던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 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통계 분석을 잘못 적용하여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은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조계원 위원 그래서 감사원은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계원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출처가, 소장이 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우려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함께 출토된 청동수반이라든가 초도 같은 것들을 같이 비교 분석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추가 증거는 오히려 금속활자의 진품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활자를 소장한 측에서,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위 여부를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확실시하게, 그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 직지심경파 아니면 그들이 이 거에 대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 지금 본인들이 갖는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까 봐 일부러 고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께서 엄정하게 이 사안을 조사해 주시고 규명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유산을 절차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이용하고 사적으로 했던 것들이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단호하게 바로잡고 책임 있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청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년에 안동 병산서원 갔던 거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안동 병산서원 국가유산이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여기에서 불법 식수를 했습니다.

PPT에 사진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수를 하려면 안동시에 현상 변경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장 허가받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맞습니다.

○**손솔 위원** 이때 현상 변경 허가한 적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에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허가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허가한 적 없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손솔 위원 유산청장 허가받지 않은 식수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불법입니다.

○ 손솔 위원 불법입니다. 불법 사태가 발생한 건데 2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원상회복 조치를 안동시에 통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를 취한 게 따로 없어요. 기초적인 조사 이것도 지금 된 게 없고요. 경북도청, 안동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 미루는 사이에 이 불법 식수된 나무 그대로 2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불법 현상 변경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중한 범죄에 지금까지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안동시와 조치하면서 일단은 현상 변경을 하도록 조치했고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 손솔 위원 원상회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이고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당연히 해야지요.

○ 손솔 위원 이 불법에 대해서 조사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철우 경북도지사랑 권기창 안동시장 이때 불법 식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조치가 아니라 불법에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 손솔 위원 전 대통령이라고 봐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더 비슷한 게 유산 관련해서 또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만든 공예품 대여하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실 뒤에 걸려 있는 저 병풍도 국가유산청에서 대여한 작품입니다.

PPT 보여 주시면요.

전승공예품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져서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래서 변상……

○ 손솔 위원 무형유산국장님, 전승공예품 관리하시지요?

○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솔 위원 이게 23년 12월에 깨진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요 12월에 깨졌는데 24년 1월에 이걸 복원했다고 해요. 이거 깨진 거 복원이 되겠습니까? 복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복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을 내도록 했고 변상금 300만 원을 세입했습니다.

○ 손솔 위원 그러니까 23년 12월에 깨졌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24년 1월에 복원이 됐다고 공문을 보내온 거지요. 그랬는데 이게 복원이 된 게 아니라서 3개월 후에 300만 원 변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저희가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 손솔 위원 그런데 변상을 요청을 하신 건 알겠는데 복원이 됐다고 중간에 이야기했

잖아요. 복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불의의 사고로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누가 어떤 사고로 이게 일이 벌어진 건지 확인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저희가 매년 연말에 관리 상황들을, 여러 군데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 대여 기관으로부터 연말에 관리 상황을 보고를 받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손솔 위원**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PPT 보시면 ‘1(복원완료), 세부내용 별도송부’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이 세부 내용은 또 자료로 보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가 났는데 복원됐다고 말한 것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이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나중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손솔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맞습니다.

○**손솔 위원** 그것을 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손솔 위원** 확인을 추가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 세부내용 별도 송부자료가 저희한테 안 왔어요.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제가 확인해서……

○**손솔 위원** 세부내용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있으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손솔 위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300만 원 변상했는데 그 금액도 이것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금액으로 변상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추후에 종감 때나 더 이어서 질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유산청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앉으셔도 되고요.

이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만든 공예품, 우리나라 문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시하고 사용하는 것이어서 대여도 해 주시는 건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사고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들어간 공예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보안 이유로 사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전시되는 거면 특정 장소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냥 맡기고 보안상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통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장님, 일제 강점기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국가유산청에 67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제강제동원 관련된 유산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

○**손솔 위원** 1건입니다, 단 1건.

○ 국가유산청장 허민 1건이에요? 예.

○ 손솔 위원 인천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 출사택 부지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국내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작업장 목록이 7000건이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손솔 위원 파악이 됐어요, 2015년에요, 10년 전이지요.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조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유산 보존을 위한 업무 협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더……

○ 손솔 위원 1분만 더……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별도 요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손솔 위원 이 미쓰비시 출사택도 국가유산청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일제강제동원유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제강제동원이라는 흔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7000건이나 있었는데 지금 누락이 됐고요. 피해자지원재단에서는 ‘우리는 조사만 할 수 있다. 유산등록은 유산청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유산청에서 일제강제동원 지금 국내에 있는 것들, 국내에 있는 것들 강제동원 관련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발로 이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우리 국내에 있는 사업장만 해도 7647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본 기업이 1144개가 한반도 내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그게 나와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 올 후반 철저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함도나 사도광산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노동이나 강제동원한 사례에 대해서 발굴해서 이것을 강제노동, 강제에 대한 좀 더 나아가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까지 한번 해 보려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준비를 해서요 우리나라의 강제동원 사례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손솔 위원 흔적이 사라지고 있고 일본에서 강제동원 부정하고 있잖아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 부정을 못 하게 한번 철저히 해 볼립니다.

○ 손솔 위원 우리 국내 안에 있는 것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청장님, 지금 곧 APEC이 열리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경주에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열립니다.

○**김승수 위원** 경주라고 하면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등재된 석굴암 불국사를 비롯해 가지고 경주역사유적지구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또 양동마을, 경주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도 보면 하회마을 또 서원 굉장히, 앞서도 언급이 됐던 반구대 암각화도 바로 인근에 있고요.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한 APEC을 방문하는 많은 귀빈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리 않아도 다음주 초에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공개하고 분이라든가 그리고 첨성대의 밤에 미디어 아트 불 밝히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월등이나 그다음에 그 동월, 월궁 같은 데를 원래 하는 야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APEC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발굴지를 전부 다 가림막을 없애는 그런 일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청장님, 요즘 어디 여행을 하거나 궁금한 점 검색할 때 어떤 것을 이용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주로 AI나.....

○**김승수 위원** 주로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AI를 통해서 검색한 여러 가지 정보들, 심지어는 이번에 며칠 안 남은 APEC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아주 왜곡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최지조차, 앞서 개최지를 경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개최지를 치면 서울로 나오는 그런 생성형 AI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경주 시내가, 또 우리 신라시대 유적을 보존한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치면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희한한 사진이 나옵니다. 벚꽃도 있고 이게 가옥도 보면 한옥이 아니고 일본식 그런 가옥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건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석굴암 불국사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적 아닙니까? 석굴암을 치면 위에 석굴도 없는 그런 석굴이 나오고,

또 넘겨 보세요.

뒤에 또 보면 첨성대를 보십시오. 첨성대가 이런 식으로 지금 AI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구조물입니까? 굉장히 희한한 구조물이지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제가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른하고 우아한 그런 미소를 담은 수막새거든요. 이게 홍보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수막새를 또 AI로 검색을 하면 완전히 도깨비 이미지, 이게 일본의 그런 기괴한 요괴 형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국가유산포털 같은 데에 일단은 무료로 올린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 챗GPT 등에다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탑재를 시작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제1 과제로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 창출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AI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올해 연구용역도 추경에 무려 12억을 반영해서 용역도 받겠다고 되어 있고 그동안에 디지털 데이터도 굉장히 기록을 원형 기록화 해서 보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시작이 지금 2년 된,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AI에 대해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가 다른 것에 의해서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것도……

○**김승수 위원** AI 업체들한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본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원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학습할 거리가 있어야지 제대로 학습해서 제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그게 국가유산청이나 다른 우리 국가부처에서 상당히 AI의 발달 이용 속도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업무보고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금 관련되는 부서도 없어요, 이게 전담하는 부서도.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있습니다. 디지털과하고요 신산업과를 두고 저희들이……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AI로 검색을 하면 어떤 왜곡된 자료가 나오는지?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저희들이 디지털과에서 24시간 모니터 하는 거기에 우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다행스럽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담 부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왜곡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청장님, 우리나라 국보 보물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국보 보물 합해 가지고 지금 1900……

○**김승수 위원** 청장님이 국보 보물 숫자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2개 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4300개 정도 됩니다.

○**김승수 위원** 국보 보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존할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지

요?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지금 보물에 대해서, 국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이 계속 나가고 또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김승수 위원** 제대로 국보 보물이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는……

○**김승수 위원** 최근 정기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지금 하향 등급을 받는 그런 국보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하향 등급 받은 국보 보물만 하더라도 25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 무려 두 단계 이상 하락된 보물만 하더라도 전체 73%가 되고요, 네 단계 까지 하락된 것들도 지금 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하락한 것들이 있는데 E등급 같으면 긴급한 그런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보수, 보강이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만 해 놓고 그 것을 유지, 관리 못 한다면 우리 청으로서의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기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시 내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된 건들을 다시 봐서 잘못된 것은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노력하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나마 우리 박물관이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보 보물은 그래도 관리가 괜찮습니다.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나 보물의 거의 절반 이상들이 지금 민간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민간 보유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조사는 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협조적으로 하거나 이미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비 요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고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민간인들에 대한 것이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 드려요.

○**김승수 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보존 등급이 하향된 주요 국보 중의 하나가 삼국사기입니다. 이것도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A등급에서 몇 년 사이에 E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복구가 안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 개인이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서류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개인이 사업개요부터 총사업비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것 굉장히 힘들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해도 1건 신청하면 6건 정도, 나머지 40%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정비를 못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보는, 아까 보물이 보통 지금 보니까 2700 건 되는데요. 그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김승수 위원** 그리고 민간 보유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보 보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유하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개인 돈으로 이것을 은행에 보관을 시키거나 아니면 적정한 시설에 보관시켜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주요한 유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지원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도.....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 관리에.

○**국가유산청장 허민** 보존 관리비도 같이 지금 하고 지역 활성화 사업까지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민간 보유하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보유될 수 있도록,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더 추가적으로 지원돼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후 국감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인력과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추가로 인간문화재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 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임명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전 정부에서 일으킨 일을 뒤처리하느냐고 좀 바쁘시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임오경 위원** 책임감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저희 국감에서 김건희 씨를 빼면 국감에 얘깃거리가 없을 정도로 참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흥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슴 아픈 국감을 계속 치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올해도 예외 없이 김건희 씨 이름 석 자를 뺄 수가 없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윤석열, 김건희 씨 이 두 분을 보면 언행과 행동에 참 어울리지 않게 대한민국 종묘를 사랑하나 봐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왜 그 많고 많은 장소를 놔두고 왜 종묘를 선택했을까,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신 분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있을 때 로스코 전 전시 기획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크 로스크 자녀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해서 사적 만남을 대통령실 행사인 척 위장해서 신실 개방을 요구…… 아니, 요구가 아니지요. 사용한다고 명령을 내렸지요, ‘개방해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 들어 보니까 이재필 본부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이재필 본부장님이 그것 개방해 줬겠습니까? 최웅천 청장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신수진 문체비서관의 지시 아닌 명령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난처하시겠어요, 그 책임을 지금 혼자 이 자리에서 다 전가해야 되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원칙에 어긋난 차담 요청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개방하였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고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키고 본부장은 직접 수행을 하시고 출입기록 자체는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카메라를 일시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고 인사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적 사용 은폐를 하였고,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임오경 위원**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을 잘 지키라고 궁능유적본부도 있는 거고 국가유산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도 가장 큰 임무로 알고 있고 신실까지 개방했다는 것은, 감히 후대 왕도 밖에서 무릎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그리고 가장 큰 첫 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저는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다……

○**임오경 위원** 작년 국감에서는 망묘루 종묘 차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영녕전 신실 개방, 언론을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를 했어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면 망묘루 차담회 관련돼서는 사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녕전 신실 개방 관련돼서 후손들에게 사과했습니까? 국가유산청장으로서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다른 사람이 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현직 국가유산청장님 사과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과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사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본부장님도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부장님, 궁능유적본부장님으로서 사과하셨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사과……

○ 임오경 위원 이번에 영녕전 관련돼서 제가 후손들에게 사과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망묘루 말고.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임오경 위원 특검 조사는 특검 조사대로, 처벌은 기다리셔야지요. 하지만 후손들에게 사과는 하셔야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사과하셔야 됩니다.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임오경 위원 영녕전 신실이 어떤 공간인지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태조 이성계인 4대조부터 영친왕까지 32 왕·왕후·황태자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보물 제8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임오경 위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실은 1년에 딱 두 번 개방합니다. 그렇지요? 종묘대제와 추향대제에만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하지만 후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외 친척들은 다 밖에서 그것도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밖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더 질의할게요.

이것 공식적인 대통령실 행사로 지시받았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임오경 위원 신수진 문체비서관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때 동선을 짤 때……

○ 임오경 위원 전날 같이 답사 나와서 현장 답사를 같이 했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9월 2일 당일 날 신수진 비서관인지는……

○ 임오경 위원 직접 나왔습니다.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직접 나가기는 나갔는데 누구……

○ 임오경 위원 망묘루 가기 전에 영녕전이 먼저 있었어요. 이 영녕전 소개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리고 당일 날 2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신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임오경 위원 20분 동안 그 안에서 무엇을 했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당일

날, 영녕전.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사실 영녕전 소방문에서 영부인과 인사를 하고 영녕전 서문으로 들어가서……

○**임오경 위원** 예, 20분 동안 거기서.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다음에 상월대에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영녕전 남문으로 나오는 것까지가 5분이고요. 망묘루까지 전체……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영녕전 안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본부장님은 모른다라는 것 아닙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니요, 20분간이 아니고요, 위원님. 소방문에서 망묘루까지 전체적으로 이동한 시간이 한 20분이고 영녕전 내에 있었던 기간은 한 5분 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본부장님, 그렇다면 왜 들기름 청소까지 시켜 가면서 왜 그랬었습니까? 그 안에는 왜 청소를 시켰어요? 그 전날 개방을 해서 신수진 문체비서관이랑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1실부터 4실까지, 16실까지 있는데 1실에서 4실까지만 열게 했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1신실만 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1신실에서 4신실까지 청소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그런데 저기……

○**임오경 위원** 제가 이것 보고 다 받은 겁니다.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일자 기록에는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실들을 외부에서 안으로 사실상 보게 하려니 안에 일정 정도 내부 청소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 청소를 한 것이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신수진 씨가 먼저 그 전날 그 안을 설명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봤고, 확인했고. 개방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개방 자체를 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갔고.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사전 답사 기간에요 9월 2일 날 오전에 그때 전체적으로 동선을 그쪽에서 짜면서 영녕전에 들어왔을 때 신실 하나를 열어서 내부를 설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신실 하나를 열게 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열었지 않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열었지 않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신실 안에 들어갔다……

○**임오경 위원** 그것을 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고 밖에서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립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임오경 위원** 답변 이상하세 하시네 진짜 본부장님. 열려라 참깨 밖에서 하면 열려요,

그게?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제 말씀은 신실 밖에 있는 그 문을 열었다는 사실 그런 표현입니다. 그쪽 안까지 들어가서 열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요.

○ 임오경 위원 개방 자체도 안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당일 날.

○ 임오경 위원 안에 들어가서 확인 다 시키고 청소까지 시키고, 들판·모포로 청소까지 다 시키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안 보여 줬는데 오후에 다시 재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본부장님 생각 잘하시고, 본부장님이 왜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감출 수 없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청장님, 첫 국감인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청장님, 임명 날짜가 어떻게 돼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올해 7월 17일입니다.

○ 박정하 위원 발표는 언제 됐지요? 13일 날 발표했던 것 같은데.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박정하 위원 그때 공교롭게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총회가 있었고 그 총회에서 내년도 유네스코 총회 부산 유치 그다음에 울산 반구대 암각화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박정하 위원 그런데 17일 날, 발표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 유산청장직을 맡게 될 거라고는 언제 아셨어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 2주 좀 전에.....

○ 박정하 위원 좀 전에 언제쯤?

○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 2주 됐나요?

○ 박정하 위원 2주 전에?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발표를 아는 게 아니었고요.

○ 박정하 위원 될 거라고 아신?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될 거라고 아는 게 아니었고 저를 뭘니까 그.....

○ 박정하 위원 뭐 어쨌든 인사검증 서류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임명이 될 거고 언제 발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절차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그냥 다른 말 않고요. 인사검증 서류를 검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 누가?

○국가유산청장 허민 인사수석실에서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인사수석실에서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청장님 되시기 전에 학교에 계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때 제법 정치 관련 활동 많이 하셨더라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책적인 일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정책을 가지고……

○박정하 위원 전혀 모르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희 지금 현재 야당 쪽 관련해 갖고 활동하신 것도 있어요? 어떤 것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 정책팀 안에는 많은 관련되는 교수들 분야별로 들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한 사례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주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일 많이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야 막론하고라고 하셔 가지고 혹시 저희 당과 관련한 일 아니면 또 다른 야당과 관련한 일을 하신 게 좀 있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20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 말고, 어쨌든 안 하셔도 되니까. 야당 관련한 것은 없지요? 좀 전에 여야 막론하고 정책 관련 활동하셨다고 한 것은 잘못된 답변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책을 하는 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 거기까지.

그러면 인사검증 서류하고 누구한테 통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하시겠지요? 혹시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요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아세요, 개인적으로?

○국가유산청장 허민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박정하 위원 공식적으로는 어디서 본 적은 있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나가면서는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나가면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혹시 그러면 유산청장으로 됐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발표하고 일할 거라고 준비하라고는 어디서 얘기 들으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 발표 당일 날 TV 보고 알았습니다.

○ 박정하 위원 TV 보고 아셨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박정하 위원 그때 당시에 파리에서 유네스코 총회가 있었고 전직 유산청장이, 전임 유산청장이 거기서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것은 알고 계셨어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왜냐하면 제가 유네스코 관계자 일을 하기 때문에요.

○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고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도 현장에 있었는데 총회가 한참 있고 그 유치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청장 인사를 그렇게 덜컥 내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세계유산위원회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네스코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 박정하 위원 일을 하고 계셨는데 청장님, 그리고 그런 일이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 전혀 배려 없이 덜렁 유산청장을, 전쟁터 나가 있는데 너무 무장 해제하고 총 맞아라는 식으로 덜렁 인사 발표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요,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 주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 당시 발표할 때 저를 비롯해서 몇 개 청장과 차관들도 같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유산청에 관련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배려 없이 덜렁 저렇게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보고 웃 벗으라고 하는 게 옳았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 박정하 위원 잘못됐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잘 모르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 인사 발표를, 그 중요한 유산청장 인사 발표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잘 고려를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요,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좀 전에는 잘 몰랐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사 정책이나 인사 발표가 제대로 대통령실에서 통제가 되면서 발표가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것 배려 없이 그냥 쿵쾅쿵쾅 된 건지 총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잘 모르나 여러 사안들이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청들을 발표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청장님 관련해서 발표가 대통령실에서 당시 있었던 게 ‘제대로 됐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하지만 유산청장이 세계유산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청장님의 중국 동북공정에 관한 철학 좀 여쭤볼게요.

금년 6월에 중국이 용두산 발해왕실묘지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발견된 건데 이제 와서 해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심각하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박정하 위원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은 중국 발해에 대한 역사 문제도 그렇고요.

○ 박정하 위원 그 전에 하나만 여쭐게요.

PPT 준비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4년도 당시의 일이에요, 워낙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어디 조간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역사왜곡을 강화하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 여기에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고려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는 정치하고 역사와 문화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트랙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저는 지금 여기 동북공정이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하 위원 어떻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든가 중국의 잘못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대응하면서 같이……

○ 박정하 위원 함께 대응을 어느 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아까 강요를 한 역사가 잘못된 점은 사실은 그 여러 주변국도……

○ 박정하 위원 조금 이따 말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장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하고 덤비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온화하게 말씀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안 되고.

자, 하나 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350명 본부직원에다가 나머지 해서 한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저희들 본부 직원은 1055명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정도 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다 이게 내 식구들이고 내 가족들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결과를 보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지만 그 1000명의 직원들은 소중한 청장님의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우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내 식구고 그 사람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해 주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재필 본부장입니까, 혼자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청장님은 너무 쉽게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배려하고 일단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식구 먼저 안고 보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박정하 위원** 말씀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가지로 저도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고 역사적인,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다음에 올리자면 종묘나 여기 방문할 때, 저희 청 소관 직원들의 마음을 저는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무슨 죄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저희 국가유산청 직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7급, 9급을 보십시오, 전국에 있는 부처 가운데서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닦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사람 한두 명, 몇 명은 잘못했고 나머지의 98%는 저희들이 함께 껴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 할게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건데 청장님, 종묘나 덕수궁, 창덕궁 이런 부분을 최고의 국가권력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사고가 만연돼 있다. 거기다가 부인은, 아무 직책도 없는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또 한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것이고 후대들에게도 넘겨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는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그건 그대로 놔두세요, 하게끔. 그 대신 국가유산청의 소명과 사명 속에서 처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재필 본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랐는데……

그러나 따를 것이 있고 따르지 않을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 청장께서는 가려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분명한 시시비비 속에서 하나의 원칙을 분명히 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려요.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다음번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또 하나는 우리 국가유산의 재난재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께서도 반구천의 암각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홍수와 또는 강릉 지역에는 가뭄, 그러니까 산맥 하나를 두고 경남 산청에서는 80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굉장히 재난재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국가유산청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기후변화대응 국가유산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연구개발 이걸 착수했잖아요. 이게 한 5~6년 걸리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최대한 빨리 하고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래도 5~6년 걸리잖아요, 이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걸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7년도의 국가유산 재난피해보다 작년까지 보면 7배가 급증을 했어요, 2017년보다. 이건 되게 심각해. 앞으로 더할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걸 디지털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재난재해가 있을 때 어느 유산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디지털을 통해서 금방 알기 때문에 그것을 레스큐(Rescue)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유산청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부서만 11개가 있어요. 너무 많아. 역할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누군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책임을 주고 그 책임 속에서 부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재해 그냥 허투루 보지 마세요. 재난재해가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숨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지켜 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레스큐(Rescue)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가유산청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이번에도 천년고찰 고운사 같은 경우가 전소되는 상황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위원장 김교홍 한 가지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나 한예종 이게 지금 왕릉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위원장 김교홍 이것을 계속해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지금 한예종은 용역만 줬지 거의 움직임이 없고 또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한때 공모를 해서 7개 지자체가 응모했지만 그 뒤에는 아무 소식도 없고 대한체육회에 알아봐도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국가유산청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뭐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일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미 서로 약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나가게 돼 있고 저희들은 4개를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시점이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니까, 지금. 청장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아니, 용역을 한다니까? 한예종도 용역을 해요. 그런데 적지를 아직 못 찾고 있어서 그런지,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한예종 총장 내가 조금 이따 점심 먹고 빨 건데 움직임 별로 없어요. 전 김대진 총장한테도 제가 확인해 봐도 별로 움직임이 없어.

그다음에 국제스케이트장, 수천억 들여서 만드는데 공모를 했어요. 7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작년 국감 때 ‘이건 문체부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 하려다가 지금 홀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청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해라’ 이런 것들을 유산청이 해야지 ‘계획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시면 마냥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꼭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 민형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예, 민형배 위원.

○ 민형배 위원 오전 제 질의 과정에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이 지난해 김건희 씨 종묘 방문 사전 조율과 관련해서 창구가 대통령비서실의 박현경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감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경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우선 당시 문체비서관실의 박현경 전 행정관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혹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나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고발 및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부인의 문화유산, 국가 모두의 문화유산의 사유화, 침탈, 농락 이런 사건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재발 방지를 하려면 반드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고 전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절차 위반, 기록

누락, CCTV 중단 등등 이 은폐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꼭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유산청이 그런 관련 자료에 대해서 자꾸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만 해도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아까 잠깐 제기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자꾸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피감기관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 14일이지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고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자료 은폐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우선 민형배 위원께서 얘기하신 증인 채택 부분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고요.

그저께 첫 번째 국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체부나 또 그 산하기관들, 유산청이나 이런 데 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여러분들 꼭 주세요. 아니, 정 안 되는 것은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게 그냥 계속 있다 보면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료를 안 줘요? 결국은 위원님들이 막 얘기하면 나중에 또 나오는 자료들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허민 청장께서 그것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자료가 제대로 위원님들께 송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위원장 김교홍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때 김승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한 6개의 소속기관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3분 이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강경환 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민족자존, 문화창달을 건학이념으로 백제의 고도인 부여에 2000년 개교하여 현재까지 29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우리 대학의 졸업생들은 국가유산청과 연구원, 박물관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으로 2개 단과대학과 3개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교육원을 통하여 일반인 대상의 국가유산수리기능인 양성 과정과 대국민 국가유산 향유를 위한 사회교

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국가유산 미래를 밝히는 세계적 인재양성 대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주요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국가유산 정책과 대학 발전방안 등에서 정책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학술과제 수행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 기반 마련으로 대학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여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를 영향평가 분야의 국제적 연구 허브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대학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환경과 전통건축학과 설계실습동 신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학생들의 실무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부여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해 전통문화재박물관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학생 학습권 및 교육복지증진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분야 전문 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과 신기술을 접목한 창의융합 교육과정 개설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학제 개편과 창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에 공헌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석자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제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K-헤리티지 국제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전통문화 분야 민간 외교 역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국가유산 분야의 국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유산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산수리기능인과 담당자 교육과정의 체계화로 국가유산 보호·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바로잡고 제언해 주신 사항은 업무수행과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임종덕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임종덕 안녕하십니까?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임종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969년 설립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화유산 조사연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2개의 과와 6개 연구실, 1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으로는 7개의 지방연구소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조사, 연구, 발굴, 보존 그리고 복원과 관련된 종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2025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래 문화유산 자원 가치창출 및 활용 다변화,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존·재난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디지털 문화유산 생태계 조성 및 연구성과 확산, 기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서비스 품질 구현 등 총 네 가지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유산 자원발굴 및 정책 활성화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 연구개발로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지역 역사문화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문화권 향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연구성과를 향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현장 및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올바른 복원정비를 위한 고증연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고도화하고 주요 R&D 사업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문화유산 관련된 산업화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존·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파괴를 통한 영상진단, 연대 측정, 분석시료 관리 등 문화유산 진단·분석 기술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가고 있는 문화유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생물피해 조사 및 생물방제 연구, 건축문화유산 지진 대응력 분석, 재난 유형별 대응을 위한 국가유산 재해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및 피해저감 기술연구 등 전기비 저항탐사를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문화유산 지반 변화양상 모니터링도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정보 디지털 문화유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활용도 또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연구정보 통합관리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료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다양한 공유 채널을 통해서 해외 홍보 활성화를 통해 저희 기관의 인지도 세계화 및 국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서비스 품질 구현을 하겠습니다.

핵심과제인 저희 서비스 혁신과제의 중심 추진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성과를 도출하고 국내외 연구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최신의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연구원이 국가유산 발전 정책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문화유산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고궁박물관 정용재 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 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박물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전문 박물관입니다.

1992년 여러 궁과 왕릉의 조선왕실 유물을 모아 궁중유물전시관을 설립하였고 2005년 경복궁 내 현재 자리로 옮겨와 국립고궁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강원 평창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또한 개관하였습니다.

국민들께 품격 있는 왕실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물을 수집·보존·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 및 교육 등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고궁박물관의 2025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조직과 인원은 3과 1소속기관 46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215억이며 이 중 사업비는 210억입니다. 소장품은 어보, 어책, 어진 등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관련 유물 9만여 점으로 이 중 국보가 82점, 보물이 796점이 있습니다. 관람객은 2025년 9월 24일 기준으로 국립고궁박물관 51만여 명,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25년 5월 전관 개관 이후 5만 30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박물관의 목표는 왕실문화 전문 박물관으로서 위상 강화, 국민 체감형 왕실문화 서비스 제공 확대, 왕실유산 보존·관리의 지속가능성 증진, 실록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문화로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첫째, 왕실문화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올해 개관 20주년 사업을 맞아 왕실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창덕궁 벽화 전시, 국외 소재 문화유산 공개 등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여 박물관과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왕실문화의 보존·관리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서 유산의 보존·관리 연구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방형 수장고인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소장품의 지속적 확보로 안정적인 교체 전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록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올해 5월 1일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전관 개관하였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기획전시실, 영상실 등 박물관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하여 강원 지역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약 기반으로서 실록·의궤의 온전한 보존·관리와 관람수요 충족 등을 위해 2026년 디지털 외사고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보고드린 사항들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의 문화유산의 향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능유적본부의 이재필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궁능유적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 1월 2과 9개 관리소로 출범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1595억 원으로 궁궐과 조선왕릉 등 궁능유산의 체계적인 복원·보존·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관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께 위로와 휴식을 드리는 공간이자 K-문화유산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국능유적본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궁능유적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궁능유적본부는 궁궐과 조선왕릉의 역사적 원형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영훈당, 덕수궁 흥덕전, 사직단 안향청 등 복원·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 정전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월에는 신주를 다시 봉안하는 종묘 환안제를 봉행하여 궁능유산의 유형과 무형의 가치가 조화롭게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궁궐의 가치와 의미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연 2회 궁중문화축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서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인기 프로그램의 외국인 전용 티켓을 확대·운영하고 그리고 다국적기업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와 협업으로 세계인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활용한 궁능유산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조선왕릉축전을 전 지구 관리소로 확대·운영하고 각 왕릉관리소의 자체 행사를 왕릉축전과 연계함으로써 관람객의 다양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조선왕실의 원묘 최초의 역사문화관인 순강원 역사문화관을 11월 신규 개관할 예정이고 기존 역사문화관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정보와 흥미를 동시에 담은 콘텐츠로 지속·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궁능유적본부는 궁궐과 조선왕릉의 지속적인 보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체와 협력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으며 유네스코, ICOMOS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세계유산으로서 지위, 국제적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와 협력해서 궁능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홍보하고 올바른 궁능유산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국가유산진흥원의 이귀영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이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유산진흥원은 1980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출범한 이래 현재 국가유산체계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유산진흥원은 안정적 전승기반 구축으로 무형유산의 사업화 확산과 K-헤리티지 브랜드를 강화하여 국내외의 대표적인 문화상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집을 중심으로 전통 한류 확산과 한류문화를 진흥하고 한식아카데미 사업 등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창덕궁 달빛기행, 궁중문화축전 등 궁능 활용 콘텐츠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국가유산을 더 가까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는 국가유산 채널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유산 영상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국가예산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AI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사업 등 지역 협력을 통해 모든 국민이 누리는 국가유산 가치를 확대하고 맞춤형 국가유산 교육을 바탕으로 취약지역과 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규모 발굴조사 사업과 같은 국비 지원 발굴조사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고 발굴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과 공간 플랫폼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는 언제라도 우리 진흥원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곽창용 이사장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안녕하십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사무총장 곽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조사·연구·환수·활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2년 7월에 설립된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입니다.

현재 4개 부서와 3개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90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다각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국외문화유산 현황 통계를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와 테마연구, 해외연구 지원 등 다양한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외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지금니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2’, ‘관월당’ 등 중요 문화유산이 국내로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국외문화유산의 현지 활용 및 관련 사업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학술 교류 및 교육 지원, 민간단체 지원,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국외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의 보존·복원과 특별전 개최 지원 사업 등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재단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 관련 기초자료 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하여 조사보고서 발간, 대국민 서비스 웹페이지 운영, 국외문화유산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며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조사와 환수·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국외문화유산 전담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기관의 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곽기홍 솔브케이 대표 1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장 1명뿐입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면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곽기홍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곽기홍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박후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박후근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세요.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곽기홍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증인 곽기홍**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증인 곽기홍

○**위원장 김교홍**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증인 신문도 있으므로 뒤에 추가 질의시간 3분까지 당겨서 쓰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면)

국가유산청이 일정 기간 여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를 반복적으로 선정해서 38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특혜가 아닙니다. 업체 평가제도 자체를 이용한, 악용한 특정 사무관 개인과 다수 업체 간의 구조적 유착이라는 점입니다.

담당 사무관이 기존 조달청 평가 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평가 방식을 자체평가로 변경했습니다. 사업 수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특혜 수단 자체평가, 국가유산청은 2020년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평가위원회 중에 외부 평가위원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담당 사무관이 평가위원을 직접 섭외해서 구성한 자격 불명의 평가위원들이 사실상 낙찰 업체를 정하고 계약 수주를 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평가위원 중복참여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 반복 참여하는 경우도 허

다한데 최대 6회까지 참여한 인원도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평가가 아니라 내정에 가깝지요. 이 방식을 통해서 국가유산청의 단골이 된 대표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2020년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자체평가로 바뀐 이후에 최연규 사무관이 임의절차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다. 2019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신생 업체였었던 회사인데요 솔브케이라는 회사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기존의 100억대 수주를 하던 업체를 제치고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후 해당 업체는 최연규 사무관이 부서에 소속된 기간 동안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반복 수주했고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유산청에서 약 90억이 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21년에는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DB 구축 사업에서 자체평가뿐 아니라 입찰담합 정황까지도 보였습니다.

솔브케이는 해당 사업의 입찰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일주일 뒤에 선정된 회사에 견적서를 내고 사업 담당 부서 승인까지 받아서 하도급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경쟁사였던 B 업체도 2개월 뒤에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으로 참여했습니다. 입찰 전 사전 모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제다가 일부 업체는 기관 승인 절차 없이 하도급으로 참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무려 100억 원 규모가 넘는 사업을 최연규 사무관의 관리·감독 아래서 유착업체가 나눠 가지도록 판을 짜 준 겁니다. 해당 사업들로 수행실적 쌓은 업체들 동 사업 반복 수주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까지 확장해서 현재까지도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유착 의혹 업체들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산청 사업 계약 수주액이 760억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최연규 사무관 담당 사업으로 규모만 380억 원입니다. 해당 업체들이 계약한 사업 중에 절반이 동일 사무관의 담당 사업에서 나온 게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청장님, 국민 세금 쓰는 공무원이 참으로 간도 큅니다. 최연규 사무관 개인이 담당한 부서에서만 380억 원 수준의 계약이 특정 업체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봄주기식 내부 감사 문제인데요.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했는데 법령 위반 사실 없으므로 내부 종결됐습니다.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이 없어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고 사실관계 파악과 진상조사를 위한 그런 의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봄주기식 내부 감사로 비추어질 뿐이고 면죄부를 발급하자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기홍 증인 나와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국정감사 증인 신분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훗날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했던 부서의 최연규 사무관과는 언제 처음 알게 됐습니까?

○증인 곽기홍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김재원 위원 18년 아니었습니까?

○증인 곽기홍 아닙니다.

- **김재원 위원** 18년에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 곽기홍** 2004년도에 제가 문화재청 문화재 GIS 기본계획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때 감독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 **김재원 위원** 2008년 이래 사업제안서 작성 등을 통해서 친분 쌓았다는 것 사실입니까?
- **증인 곽기홍** 2008년이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곽기홍** 2008년에는 최연규 사무관님이 문화재청에 안 계시고 전통문화대학교로 발령이 나셔서 해당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렇게 수행을……
- **김재원 위원** 사업제안서 작성한 일 있잖아요.
- **증인 곽기홍** 2008년이요?
- **김재원 위원** 예.
- **증인 곽기홍**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사적으로 자주 만나시는 사이지요?
- **증인 곽기홍** 사적으로 별도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 **김재원 위원** 캠핑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캠핑 장비까지 구매해서 건네지 않았습니까?
- **증인 곽기홍** 송구합니다만 해당 캠핑을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 **김재원 위원** 최연규 사무관으로부터 직접 회사 창업할 때 도움 주겠다 이런 제안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 **증인 곽기홍**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20년 당시에 문화재 공간정보활용체계 사업 수주할 때 최연규 사무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사전 정보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 **증인 곽기홍**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그 수주 대가로 금품을 비롯한 수수 행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 **증인 곽기홍**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금전 거래 없습니다?
- **증인 곽기홍**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최연규 사무관에게 함께 컨소시엄 구성했던 기업 중에서 금전 거래나 금전 전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증인 곽기홍** 모르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모릅니까? 계속 거짓말할 겁니까?
- **증인 곽기홍** 잘 알지 못합니다.
- **김재원 위원** 21년에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에 선정됐는데 실패한 뒤에 최연규 사무관에게 선정사 하도급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청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곽기홍** 그런 사실 없습니다.
- **김재원 위원** 안 했습니까?
- **증인 곽기홍** 예.
- **김재원 위원** 최연규 사무관이 2021년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에 귀사가 선정됐는

데 실패한 뒤에 선정사에 하도급으로 계약 맺도록 도움 준 적 없다고요?

○증인 곽기홍 예.

○김재원 위원 국가유산청 사업 참여 초반에는 수행 실적 적으셨을 텐데 어떻게 수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경험이 없는데요.

○증인 곽기홍 20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원 위원 예.

○증인 곽기홍 제가 그 사업을 아까도 처음 알게 된 게 20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20년 전부터 해당 분야에 계속 종사를 했고 문화재청 사업을 제 이전에 소속됐던 직장에서도 계속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관련 이력들은, 개인들에 대한 이력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사업을 했던 그 주관 사업자였던 회사랑 같이 수행을 했었던 컨소시엄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주로 데이터 구축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그쪽에서 저희랑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해당 분야에 저희 참여기술자들의 전문……

○김재원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국가의 일을 하도급, 국가의 일을 줄 때는 보통 자체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사무관이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일 주지 않습니다.

○증인 곽기홍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게 개인의 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 를 하시는 거잖아요.

○증인 곽기홍 그 부분은 제안 평가……

○김재원 위원 됐습니다. 증인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국가유산 관리해야 할 기관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공직 윤리가 아니라 공적 부패겠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재원 위원 유산청 자체감사·조사 법적 한계가 부족해서 사안 밝히기 어렵습니다. 외부 수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해 주십시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즉시 검토하시겠습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은 이와 비슷한 건에 대해서 지금 같이 감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또 증인 채택까지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죽 보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저희들 한계가 있으면 바로 다른 감사 청구나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증거 자료가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 청구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제가 참고인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서 국보·보물에 대한 그런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 형식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과거의 인간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에 대한 그런 사후 관리도 굉장히 지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를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거의 지금 76세에 가깝고 90세가 넘는 보유자도 지금 아홉 분이나 되십니다. 최고령 보유자는 96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지금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공연예술인이거나 특수한 기능을 보유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고령화되면서까지도 그런 공연이라든지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거나 재연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정될 때만 실제 공연 상황, 실제 기능 재연 상황이 영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지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들을 제가 요구를 해 봐도 실제 이분들이 아직도 그런 기능과 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인간문화재들의 주요한 역할이 그런 전통기술들을 계속 계승시키고 또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체 지금 인간문화재 그러니까 무형유산 보유자가 한 17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청장님, 이분들이 실제 당초 보유자 지정 당시의 기능과 또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개개인별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한복과 관련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생성형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전통 문화유산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복과 관련해 가지고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복이 아닌 이상한 중국풍의 옷이라든지 일본풍의 옷을 한복으로 이렇게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피켓 좀 한번 보시지요, 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즘 우리가 고궁에 입장할 때 한복 입으면 입장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입장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한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어떤 게 가능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오른쪽입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에서 가능한 것은 이쪽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만 가능하고 두 가지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표준 한복이 어떤 것인지 그런 원형이 어디에 보관돼 있거나, 지금 있습니까? 우리 표준 한복의 원형이.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한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말씀을 드렸는데 한복 장인은 이런 인간문화재,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닌……

○**김승수 위원** 한복 장인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복 장인은 안 되고 한복 입기는 돼 있는……

○**김승수 위원** 그리고 다음 주에 저게 있지 않습니까? 한복문화주간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한복의 날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복의 날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한복의 날이.

○**김승수 위원** 한복의 날이 10월 2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 지정 그런 기념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재미교포가 한복을 중국 옷이라고 하니까 거기 뉴저지주에 이야기를 해서 지정한 날이 10월 21일인데 그게 국가기념일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복에 대해서 홍보 또 개량한복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복의 기본에 대한 연구나 또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고인으로 한복진흥원장으로 있는 박후근 원장을 불러서, 참고인 좀 나와 주시지요.

시간이 다 돼서 3분 더 쓰겠습니다, 뒤의 것.

지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한복진흥센터가 201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우리 한복의 원형이 뭔지 또 현재 우리가 한복으로 알고 있는 전통 한복이 언제부터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천돼 왔는지 이런 기본적인 연구자료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국회도서관에 제가 여러 가지 한복 관련 서적을 찾아봐도 그런 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워낙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기능을 대신해서 한복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립 어떻게 되었고 설립 취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박후근** 한국한복진흥원은 국내 유일 한복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상주시 조례로 설치되어 경상북도 소속 경북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1년 4월 개원 이후 전통 한복의 계승·보존, 한복 교육과 문화 확산 그리고 한복 산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제가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서 이 기관이

설립됐고 또 많은 역할을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성과들 또 이 역할들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박후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표 한복을 뽑아 우리 옷 100선을 선정했고 문체부의 예산 지원으로 경북한복문화창작소를 4년째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APEC 한복 사업을 맡아 10월 29일 경주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에 대한 고증이나 연구가 미흡하다 보니까 최근에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으로 여러 가지 K-드라마 또 웹툰·게임까지도 한복을 입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엉뚱한 시대의 옷이 그때 시대의 옷인 양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한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한복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서 돼 있는 것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개량한복이라고 하는데 저게 전통 한복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복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그런 복장들도 앞서 보여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한복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문제점 또 아까 한복진흥연구원의 여러 가지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坦없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박후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하여 한국한복진흥원을 활용한 국가 한복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한복에 대한 기초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한복 정책, 전통 복식, 산업 활성화로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한복 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승수 위원 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산하 기관입니다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한복진흥센터가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회에서도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개량한복, 디자인을 좀 세련화시켜서 전시하는 그런 데 머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번 정기국회 때 국회의원들도 일부 한복을 입고 등원했습니다만 굉장히 저게 한복인가 싶은 그런 것들조차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가무형유산과 관련해서도 한복 장인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복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원형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가 있어야 되고 고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시대별로 또 계층별로 남녀별로 어떤 것이 어느 시기에 가장 그래도 우리가 전통 한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원형을 제시하는 작업을 저는 국가유산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현대인들에 맞게 좀 세련된 디자인 또 입기 편하고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원형과 또 개량된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문의했을 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편하게 한복을 입으면서도 한복이 담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게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국가유산청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즘 경복궁을 가 보면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복과 갓을 쓰고 다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 일반적인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복은 기본적인 형태로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경복궁 주변에서 파는 것들은 외국인의 아니면 약간 변형된 비슷한 것으로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가를 방문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줘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복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여기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철저히 해서 한복의 날도 기념하고 또 한복에 대해서 세계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한국한복진흥원에 대해서도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것은 문체부와 함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박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박후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시작하기 전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과창용 직무대리님, 죄송한데 안보여서 반대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PPT 먼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영조의 장례 행렬을 담은 조선왕조의궤 반차도라는 겁니다. 국가 의례를 치르기 위해서 순서나 위치 등을 숙지하기 위해 말하는 일종의 계획서 인데요. 이 반차도의 경우에 지금 현존하는 30여 개의 반차도 중에 조선왕실 도화서에서 만든, 1770년대에 만든 가장 오래된 반차도입니다.

청장님, 이 반차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좀 알았는데 오늘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예,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 반차도는요 영국 옥스퍼드의 도서관 수장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베트남인 사서가 발견을 해서 2010년에 당시 문화재청인 문화유산청에서 MOU도 맺어 가지고 옥스퍼드에서 책을 발간하는 데 우리 예산 3000만 원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곽창용 직무대리님, 내용 맞습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예.

○**배현진 위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유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현황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현황 확인한 게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24만 7000여 점이 됩니다.

○**배현진 위원** 24만 7000여 점입니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예.

○**배현진 위원** 어제 저희 의원실에는 1244점이라고 15년 전 통계를 얘기하셔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아니, 전체. 전체이고 옥스퍼드 보들리언 도서관 등 5개 기관 있는 데는 1200여 점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프랑스 파리 등 유럽권에도 사무소를 두고 신속 대응,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건데 그렇게 웃으시면서 대충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옥스퍼드에 연락을 해 봤더니 오히려 옥스퍼드에서 한국 국회가 관심을 가져 줘서 너무 감사하다……

사진 띄워 주세요.

옥스퍼드의 한국 유산 수장고에 이렇게 우리 유산이 많이 있는데 대체 이 가치와 출처를 파악하고 싶은데 우리도—옥스퍼드의 입장입니다—한국에서 관심을 안 가져 줘서 이거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고충을 토로해 왔어요. 영국 옥스퍼드가 어디 저기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고 프랑스 바로 옆에 아닙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예.

○**배현진 위원** 예산 가지고 지금 일 뭐 하시는 거예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중요도,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길이 못 미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손길이 프랑스에서 영국도 못 미치면 이거 안 되겠지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예.

○**배현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임명되신 이후 직후에 7월에 한 행사에서 해외에 불법 반출된 우리 유산들 반드시 다 환수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실제 현실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MOU까지 맺은 기관과의 우리

유산에 대한 관리, 이것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지속이 안 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희가 강원도 평창의 월정사라는 곳에 조선왕실의궤와 실록을 환수해서 지금 박물관도 짓고……

고궁박물관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으시지요? 뒤에 있으시지요, 박물관장님?

○**국립고궁박물관장 정용재**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주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월당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찾아 가지고 했다기보다 고토쿠인이라는 일본의 절에서 이것은 한국에서 불법 반출된 100년 된 문화재인데 대불전 뒤에 숨겨져 있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양심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지난 전임 청장님이 가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관월당 전체를 분해해서 가져오게 된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실제로 우리 기관이 예산을 받아서 가서 찾아서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에 있는 것도 수장고 관리가 안 되는 거면, 프랑스에서도 관리가 안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본청 안에는 국외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파리에 있는 유럽사무소가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금 채용하고 있는……

○**배현진 위원** 청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지금 저희한테 토로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배현진 위원** 서유럽권 같은 테는 우리가 굉장히 교류가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특히? 일본도 그렇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외에 반출된 유산들 확보하고 싶다 하면 기재부든 어디든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늘리시고 인원을 늘리시는 노력을 하셔서, 저희 국회에도 요청하시고, 중요한 문화재는 환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저 1분만……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무궁무진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특히 일제시대에 도난당하고 한 그런 미술품들, 예술품들이나 조선왕실의 보물들, 그리고 어떻게 훌러갔는지…… 아까 반차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 왔던 영국인 주교가 가져가서 기증했다는데 훔친 건지 어떻게 반출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다 파악하셔서 인력이든 예산이든 잘 확보하시는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의 보물 다 되찾아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오 한번 밝혀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역시 24만 7000점이 국외 자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10%밖에 환수를 못 했더라고요, 아니면 기증을 받았거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배현진 위원** 수장고 등의, 옥스퍼드와는 지금 제가 밝힌 바 관리도 안 되고 있다니까 협업 방안 보고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옥스퍼드는 저희 유럽사무소 사람들이 가서 진위 여부하고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필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 표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종묘 사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공적 의뢰만 있었습니다. 딱 하나, 김건희 차담회 말고는요. 모두 공적 의뢰만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안 주시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청장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이 있지요? 세계유산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 보면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 보존 상태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그때 종묘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 그 상황을 알 수도 없고 누군가 어떻게 거기 가서 훼손을 하는지 보존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거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 본부장님, 안 하셨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민형배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건설이나 이런, 크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유산청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 오셨는데 폐루의 마추픽추 여기는 관리·탐방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이거 영향을 미친다고 봤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여기는 기관이 관리를 실패한 것만으로도 보존을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모니터링 대상이 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운영지침대로. 맞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민형배 위원** 청장님, 이거 그동안 유산청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 방침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러니까 지난해 김건희 씨의 종묘 사적 사용, 그 침탈 사건은 은폐·특혜·관리의 실패,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폐·특혜·관리 실패. 공백 없는 관리체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관리책임 조치를 이번 국감 과정 이후에 반드시 새로 조명을 다 하셔서, 살펴보셔서 이런 유사 사례까지 다 점검하셔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문화유산 이행지침에 걸맞은 그런 절차를 만들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가 볼게요.

보스턴 미술관에서, 저희 작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회암사에 사리는 와 있고 사리구는 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게 각각 따로 지금 보관돼 있는데 괜찮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도 회암사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2개가 같이 오는 게 원칙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못 오고 있습니까, 사리구가?

○국가유산청장 허민 처음에 과거 저희 문화재청에서는 사리와 사리구를 환수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마는 23년에 김건희 전, 방문 이후에 그게 조계종과 함께 사리만 반환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을 저희 청에서는 존중하는 대응을 한 것 같아요.

○민형배 위원 24년 10월 10일까지 타임라인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건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그 바로 다음 날 보스턴 미술관에서 10월 11일에, 저희들이 10월 10일에 국감을 했는데 11일에 메일을 보내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한국 정부와 불교계가 사리구의 도덕적·법적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리구 대여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청장이 빌려 오기라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대여라고……

○민형배 위원 그런데 보스턴 미술관에서는 바로 그다음 날 ‘안 돼요’.

지금 사리구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소유권 분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분쟁 중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못 주겠대요,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유권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철저하게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때문에 발생한 일

이에요. 좋게 우리는 둘 다 함께 반환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해 왔었는데 자기가 괜히 거기 가 가지고 사리라도 먼저 가져오면 어찌나 해 가지고 가져오는 바람에 사리구 못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다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정확히 하고 과거의 원칙대로 사리구를 빨리 반환해야 됩니다.

○ **민형배 위원** 문제는 올해 3차까지, 올해 3월까지 해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보스턴에서 응답을 않고 있지요, 보스턴 미술관이?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보스턴 미술관은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사리구는 자기들이 갖고 사리는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철저하게 다시 협상을 벌여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나서 둘 다, 사리구도 하나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민형배 위원** 아니, 방법이 뭐냐고요, 방법이.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난번에, 제가 한 달 전에 APEC에서 문화장관님 밑에 있는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가지고 거기에서 해외에 환수되는, 미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포괄적으로 서로 논의를 했었는데 그거 하나로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의 미술관도…… 저희들이 더 역할을 하도록 서로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겁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거는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끝까지 고집 내지는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수현 위원** 국가유산 수리를 위한 전통재료 비축계획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유산 수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유산 수리는 우리가 목재, 석재,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재료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걸 비축해서 즉각즉각 대응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한 거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수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통재료를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 또 인력양성 이런 게 함께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박수현 위원** 그래서 오늘 질의는 제가 전통재료만 합니다만 그런 인력양성과 기술연구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으셔서 전통재료를 포함한 이 세 가지에 대한 장기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 보시고 또 그것을 위한 제도개선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수리법에 의거해서 지난해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설립하

고 전통재료 연구와 비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이 재료센터라고 하는 게 작년에 됐다는 거지요. 여태 그런 게 없었다는 것에 참 놀랄 일인데 어쨌든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작년에라도 이것이 이렇게 열려서 운영하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PPT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전통재료 비축계획과 실제 비축현황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4년에 목재의 계획비축량과 실비축량의 차이를 보면 실제로 비율이 12.2%가 되지요. 또 석재의 경우에는 계획비축량이 없었는데 실비축량이 113t이나 되고 25년 8월 말 기준을 보면, 목재를 기준으로 보면 1년 만에 저렇게 12.2% 비축량에서 무려 1000% 가까이 비축을 하게 됩니다. 석재는 역시 계획에 없다가 저렇게 되지요.

물론 충분하게 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재와 석재 등 전통재료를 계획한 만큼 구매하고 비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다. 저도 한번 상상을 해 봤어요, ‘저 목재는 어디서 구입할까’. 그러니까 목재 제재업자를 통한 구매 방식이 있을 거고 산림청과 협업을 해서 직접 국유림 별채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를 써 볼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쉽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석재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필요가 있더라도 거기에 맞는 좋은 어떤 어떤 석재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향성 때문에 저렇게 계획량마저도 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도 이 문제는 좀 더, 센터도 작년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 이 문제는 그런 특성과 경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더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좀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통재료의 특성상 1년 단위의 단기계획, 이거보다는 중장기적 조사와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가유산 수리와 관련된 체계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번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이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 논의 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좀 상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맞습니다.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수리 현장수요를 좀 더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빨리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게 중요하지.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고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성종 왕릉, 선릉이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 양문석 위원 저 사건 아십니까?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 양문석 위원 깊이 10cm, 지름 10cm 정도의 훼손이 있었어요. 세계문화유산 선릉과 정릉의 봉분 훼손이에요. 말 그대로 깊이 10cm, 지름 10cm 정도의 훼손입니다. 이 훼손 법적 조치 판결 결과문 알고 계십니까?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양문석 위원 올해 3월 6일 날 판결선고 확정이 났는데요. 주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조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작년 9월 4일 날 복구 완료됐습니다. 작년 8월 14일 날 훼손됐고요. 이게 세계문화유산을 향한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앞서 손솔 위원이 제기했던 병산서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좀 돌고 있는 있는 건데요. 문화유산법 35조, 국가유산 구역 내에서 식수, 조형물 설치 등 현상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 허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한 거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유산청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보존과 전승, 그렇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핵심 키워드가 보존과 전승이잖아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맞습니다.

○ 양문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정도가 복원과 발굴, 이 정도지요. 그러면 보존과 전승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유네스코에까지 보고해야 되는 이러한 유산인데 일방적으로 아무도 허가하지 않은 데, 병산서원에 식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정적·법적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안 했지요?

여기에 윤석열 그다음에 경북지사, 안동시장, 실질적으로 허가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선릉은 깊이 10cm, 지름 10cm에 징역을 1년 6개월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산청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번째, 기념 비석이 있었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 양문석 위원 비석 내용이 뭐예요? ‘방문 기념 식수 대통령 윤석열’, 비석 무단으로 설치했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 양문석 위원 그리고 무단으로 철거했지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 양문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일단 비석은 철거가 됐기 때문에 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산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철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재발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

기본적으로 수사 의뢰해야지요. 어느 놈이 이 비석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느 놈이 언제 이 비석을 철거했는지 수사 의뢰했어야지요. 의뢰하셨어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의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의뢰 안 했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훼손한 대통령, 경북지사, 안동시장, 수사 의뢰했어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그것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양문석 위원 왜 안 했어요? 안 해도 돼요? 일반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방조법이 징역 1년인데 저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안 하신 거예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일단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양문석 위원 보세요. 원상복구 명령은 기본이고요. 훼손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지. 그런데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겨서 일반인은 깊이 10cm, 10m도 아니고 10cm에, 지름 10cm 이거 훼손해 가지고 1년 6개월 징역을 받고 방조법이 1년을 징역을 받는데 왜 저들은 형사 조치 안 해요?

거기도 선별적으로 백 없고 힘 없는 놈은 고소·고발하고 백 있고 힘 있는 놈은 봐주고. 그리고 어느 놈이 비석을 세웠는지도 모르고 비석 어느 놈이 철거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재발하면 문제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다, 원형복구합시다. 그거 행정 조치 됐나요, 식수?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식수는 저희들이 원형복구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지금 1차로 올라온 안건이……

○양문석 위원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이에요? 언제적 사건이에요, 이거?

○위원장대리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1분 더 드렸거든요.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양문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문화유산법 제99조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양문석 위원 무허가 현상 변경 때 징역 5년 이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하 벌금 하셔야지요.

청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장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의뢰하시고요. 두 사건입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시고 식수했던, 불법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식수를 했던 자들 그다음에 식수와 관련된 비석을 세웠고 그리고 무단 철거했던 자 수사 의뢰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 조치하시고 그리

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태만, 직무유기했던 문화재청, 유산청 내부 결재 라인들 인사 조치하고 징계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 철저히 저희들 내부에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범법이 되면 바로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증인 앉아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님, 아마 유산청이 작년에 정부 국가기관으로는 특이하게 웹툰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환수왕’이라는 거 웹툰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웹툰.....

○**정연욱 위원** 그게 국가기관 웹툰 치고는 나름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수왕이라는 인물이 와서 외국에 우리 반출된 문화재를 가져오고 이런 성과를 상당히 내는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의 국가유산청은 그만큼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실제 현실에 국가 해외 문화재 환수가 제가 여기 조사한 바로는 거의 5%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지만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24만 7000여 점 되고 그 중에 일본·미국·독일·중국·영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국내로 들여온 것이 한 1288건으로, 저희가 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환수 실적은 고작 한 100건 정도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환수 담당 인력이 고작 2명이니까 상당히 벼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역사적 의의나, 이건 누구라도 공감하는 것이고요. 다만 인력 문제만으로 이것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24만여 건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실태파악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로로 어디에 다 소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떤 환수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간혹 경매에서 이런 해외문화재를 입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찾아올 경우에 여기에 보면 유산청에서도 난문화재라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몰수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최근의 그런 경우를 몇 개 보면 장렬왕후 어보를 2500만 원에 미국 경매에서 입수했다가 감정을 맡길 것 아닙니까? 아마 감정을 맡기는 여러 가지 있지요. 국립고궁박물관에 감정을 맡기니까 도난문화재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몰수당했습니다. 중간에 법원은 아마 화해 권고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한 5000만 원 정도, ‘국유재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법원 결정은 결국, 말씀하셔서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법원의 결정, 도난문화재라는 염연한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유산청이나 국외소재문화재단 쪽에서 과연 이런 경매에 오르는 여러 가

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의뢰가 들어가니까 도난문화재라는 거 알지, 실제로 이후에만 알지 사전에 경매에 어떤 작품이 어떻게 올라오고 하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국외 관련된 유산은 약 한 40% 이상은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100% 못 하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몇 분의…… 2010년이지요. 이분은 지폐 원판 아마 호조태환권을 낙찰받았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몰수가 됐지만 아마 문화재청은 당시 이 경매에 우리 문화재 130여 점이 함께 출품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회수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화재청이 안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단 쪽에서 안고 있는 현실적 인력의 한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부분은 과연 이게 도난문화재인지 아닌지도 성격이 판단 안 되지만 언제든지 보상할 수 있다는 금액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과연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항상 도난문화재 딱지만 붙어 버리면 언제든 몰수하고 있다는 걸로 갔을 경우에 누가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양성화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국내의 여러 가지 있는 부분, 해외에 지금 흩어져 있는 문화재 부분을 환수하는 부분이 지금 유산청 인력의 한계를 들어서 어려우시다면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 7000점에서 40% 이상은 파악이 됐는데, 특히 민간에 의해서 매매하거나 거래된 부분은 70~80년 지난 그런 과정에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요. 또 민간이 했던 것이 불법으로 나가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사가 되게 어렵고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물이라든가 아니면 도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자칫 이런 노력 자체가 모든 정상적인, 모든 환수 노력 자체를 음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산청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검토하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정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그다음에 조계원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해주셔서요. 작년 국감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던 사리구 반환 관련돼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팩트 관련해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참담한 심정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사리와 사리구가 둘 다 문화재입니까, 사리구가 문화재입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둘 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사리는 문화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차장님?

○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 이기현 위원 사리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사리.....

○ 이기현 위원 작년 국감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런데 사리만 돌아왔습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김건희 씨는 대공덕주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화엄사에서 화려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이기현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사리구의 반환은 반환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사리와 사리구를 같이 반환받겠다라고 하는 전임 청장의 정치적 레토릭으로 김건희만 대공덕주 만들고 유산청은 정말로 바보된 겁니다. 얼치기 문화유산 애호가인 김건희 씨에게 유산청이 농락당한 겁니다. 저는 국가기관에 정말로 공신력을 가져야 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떤 권력자가 문화재를 그리고 유산청을 이렇게 농락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종묘에서 창덕궁에서 그리고 저 먼 미국 보스턴의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재청장이, 유산청장이, 유산청이 농락당한 겁니다.

다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6월에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구간 내에 희귀식물 20개에 대해서 현장 검증하고 문제없다고 승인하셨습니다. 맞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이기현 위원 현장 어때야 정상입니까? 희귀식물도 모두 이식지로 가고 이식지도 잘 관리가 돼야 정상이겠지요. 그렇지요?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10월 현재 현장은 정말 엉망입니다. 지금 이식되었다고 하는 현장인데 희귀식물인 태

백제비꽃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조사했던 조사 보고서에는 있지도 않은 식물입니다. 그 식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음 순서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더 사기인데 ‘흰인가목’이라고 하는 희귀식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식지에 가 보면 일반 인가목 이식도 있어요. 그러면 희귀식물은 어디로 가고 그냥 보존 가치가 없는 인가목만 갖다 놓고 이것을 지금 유산청에 보고했는데 유산청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상부 정류장 일대는 더 많이 보존해 놓은 식물들인데 만병초 100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상류 정부장 가이드 일대에는 금강제비꽃이 그대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식 실패도 아니고 허가조건 위반인데 유산청 이것 알고 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보고받았고요.

○**이기현 위원** 사업 구간 전 구간 점검 못 하신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 조건에서 희귀식물 보존 방안에 대해서 지키기로 하고 조건부로……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4번 지주까지만 지금 점검하신 거예요. 4번 지주까지는 아래쪽이고 그 위의 상부에 보존 가치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거기는 점검 못 하신 거예요. 사업자 자체가 제출한 자료, 인제군에 접수한 자료 그대로 유산청에 넘어오니까 유산청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보지도 않고.

뒤에도 질문하겠습니다만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정말로 많은 환경적 논쟁을 가지고 긴 시간 정말로 환경과 그리고 개발이라고 하는, 보존과 개발이라고 하는 시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이게 하루이틀의 예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15년 이상 된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됐든 케이블카를 놓기로 국가적 합의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청이 마지막으로 보존해야 될 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 민간업자의 보고서를 인제군이 받아서 그대로 던져 준 것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양양군입니다. 제가 잠깐 군을 햇갈렸고요.

이런 일 저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당장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양양군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자 말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공사 중지명령 내리고 그리고 희귀식물 보호대책을 재수립해서 사업자에게 행정조치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사업자가 오색 케이블카 기둥을 놓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희귀식물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식하는 데 이식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기현 위원** 청장님, 아직도 제 말씀 이해를 못 하셨는데 유산청이 검증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정말로 확인하셨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환경단체와 그리고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강원도의 지자체가 첨예

하게 붙었던 사건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이기현 위원 이런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데서는 유산청이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및 조건부 허가 이행 점검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2023년도에 1703건의 현상변경 허가가 있었고 현장 검증은 40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양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보나 보물, 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 그리고 지금처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변경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산청이, 이것은 정말 감각의 문제 아닙니까? 감각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상 하나 여기 있다 저기다가 옮긴다고 하는 게 현상변경이 아니고 모든 언론이 바라보고 있고 모든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유산청이 가볍게 바라보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작은 인력이라면 우선 배치했어야지요. 케이블 카 밑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한 4개 정도 바라보고, 지주대 밑에만 보고 위 중단·상단 안 가 보신 것 아니에요, 희귀식물도 다 중단 상단에 있는 건데.

저는 이런 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행 상황을 보고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이것도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청장님, 오전에 이어서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드렸던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현재 그 밑에는 유적이 매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정보고도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모니터링 해 가면서 그게 유존지역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26년에 철원군과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더 하고 GIS를 더 해서 현재 유존 여부하고 그리고 꽃밭을 조정할 수 있는 그곳하고 같이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그다음에 철원군과 협력을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을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올해 경북, 경남, 울산에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피해가 좀 막대하게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중에 전소해 버려서 소멸한 것들도 있고, 이번 화마로 인해서 전소된

유산들이 어찌어찌한 유산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대표적으로 고운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진종오 위원** 지금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것들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또 올해는 기록적인 강수를 포함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산이 피해가 있는 건수들이 있는데 7월에만 27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전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다 점검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 말씀처럼 반구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침수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20년부터 24년 동안 유사한 피해 건수가 한 570여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만휴정이라고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만휴정, 경북 안동의 만휴정 같은 경우는 방염포를 미리 구비를 해 뒀서 화재로부터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작은 관심들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후재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더, 이번에 긴급예산도 120억 이상을 더 확보했고요. 다만 이제……

○**진종오 위원** 복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존 예산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둘 다 합해 가지고 긴급예산까지 같이 포함했는데 긴급예산만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한 400억 정도 더 보완했는데요. 저희들 매뉴얼 만들고 현장상황실도 운영해 가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아까 방염포도 지금 약은 걸로 재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수막도 하나 정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개장 중의 초동대응인데……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 돌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 등과 함께 저희 지금 5분 대기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이상 유무가 발견됐을 때는 바로 돌봄 거기에서 먼저 선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대응하라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AI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자가용직임에 의해서 사전에 그것을 파악해서 CCTV의 모니터링까지 사전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더라고요.

○**진종오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어느 부처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싱크홀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어요. 싱크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동하기 어려운 석조문화유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조문화유산 같은 경우

는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 가지시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유산청이 23년~27년 기후변화 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 주셨듯이?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7개 광역지자체 전수조사해 본 결과 적응 대책 마련 지원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그 이유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도 없고 예산이 제한적이다 해서 이것은 시작 단계라고만 평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인력대로 돌봄까지 이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기계적인 시스템에서는 저희들이 바로 비파괴하는 레이저 동원한 기계까지 해서 지금 이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도 이용하고 해서 사전에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유산이 분포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종오 위원**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들 관련해서 종감 전까지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유산청과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좀 일각에서는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유산청의 존재 의미가 약간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꼭 필히 신경쓰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대명률이 도난품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등록돼 있는지 모르고 보물로 지정했다가 뒤늦게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또 관련자들 징계 요구도 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이런 대명률과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송광사 오불도 사례인데요. 현재 송광사에서 1970년 도난당한 오불도 두 점 중 한 점의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송광사가 아닌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난품인 줄 알고 한 점을 되돌려준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의 사례와 달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도난품인 줄 몰

랐다, 소유권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불도는 보물지정 심의가 보류된 상태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은희 위원** 헌법재판소는 2009년에 중요 지정 문화재나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입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청장님, 유산청은 2016년도 오불도를 환수하기 위해 포틀랜드박물관과 오불도 기증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환수 이후에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문화재 반환 노력이 이룬 쾌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 포틀랜드박물관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겁니까? 오불도의 소유권도 원 소유주인 송광사로 환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저희 국가유산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로 문체부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언제까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동안은 왜 안 하셨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조은희 위원** 어떤 사항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 간에 그래도 서로 자료조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의견 조정 과정……

○**조은희 위원** 국가 간에요? 미국 포틀랜드박물관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같은 문체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유산청은 그걸 해결을 못 하십니까? 그래서 보물지정이 이렇게 보류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은 박물관과 그다음에 소유, 죄송합니다만 국립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그 문화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서로 조사도 해야 되지만 각자 또 갖고 있는……

○**조은희 위원** 그게 이해가 제가 안 됐어요. 외국하고도 되는데 왜 국내에서 그러는지…… 그래서 성의 부족이나 아니면 유산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꼴짝 못 하거나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꼴짝 못 한다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시고요.

김천 직지사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은희 위원** 직지사에는 1744년 조선 후기 제작된 대표적인 불화 석가여래삼불회도가 있는데요. 지난 9월 이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승격되면서 직지사는 명실공히 국보를 보유한 사찰이자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 직지사의 본청격인 대웅전과 대문격인

천왕문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직지사는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직지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지금 조사 같이 하고 있고요.

○**조은희 위원** 청장님 답변이 굉장히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루뭉술하세요. 제 질문은 화재가 나면 대웅전과 천왕문이 보상받느냐는 걸 물어봤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화재가 나면 100%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지금 전국에 있는 보물이나 그다음에 국보는……

○**조은희 위원** 화재가 나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묘연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직지사로 민간 소유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례가 직지사뿐 아니라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간 소유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률 지난 10년간 몇 %인지 아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29%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30%입니다. 30%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고작 네 곳 중 딱 한 곳만 가입돼 있는데요. 직지사 같은 목조문화유산 상당수가 여전히 무보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직지사에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지난 3월에 경북 지역에 대형 산불이 있었고 당시 민간에서 소유한 목조문화유산 피해 복구, 아까 무조건 다 그냥 보험 가입돼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국가예산으로 지금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성 고운사 등지에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강제할 방법이 없더라고 보험 가입률을 높여서 국가의 예산을 쓰지 않고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국유재산은, 국가유산은 100%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합니다. 다만 민간 소유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 정도는 저희들이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보기로는 현재 지금 유산에 대해서는 보험을 하려는 회사가 좀 어려움을 갖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화재……

○**조은희 위원** 그래서 문체부가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라니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의지가 없어 보여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보험회사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하고 지금 다시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또 사실 있고요.

그런데 또 민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험을 가입해서 화재가 난 이후에는 그 보험금은 민간으로 가 버리고 결국은 거기를 복구하는 것은 저희 국가 돈으로 또 복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다음에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구리 동구릉, 서울 현릉과 인릉,

고양 서오릉, 서울 선릉과 정릉 등 궁능유적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궁능은 한복을 착용한 자, 외국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무료 입장 대상자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이와 더불어서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내국인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1항에 의거하여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달리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의 외국인만 무료 입장률 시키고 있습니다. 왜 나이를 가지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내국인……

○**조계원 위원** 화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모르고 계셨나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일단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이 24세 기준이 있어서 내국은 외국의 기준으로 따르고 저희는 저희들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입장료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계원 위원** 외국에서는 오히려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이 보기애, 입장료 아까 표시가 돼 있는데 나이를 가지고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면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18세로 같이 통일하고 학생증을 소지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학생증을 소지한 경우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면 몰라도 그렇게 나이를 가지고 차별을 두면, 오히려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시정을 해 보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런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또 여러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 유흥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문화재청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경복궁 입장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일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0원에서 3000원, 즉 30%가 아닌 300%를 한꺼번에 올렸어요. 그 일을 오히려 행정 신화로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한복 착용 시 무료 관람과 같은 정책도 가능해졌고 관람객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화면 부탁합니다.

역대 청장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10대 문화재청장이었던 정재숙 청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청장에 부임한 다음 ‘국내에 문화 유적 입장료를 전수조사했다’, ‘궁능유적본부에서 앞으로 궁능 등 입장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벌써 6년 전의 얘기인데 현실에 옮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세계 주요 궁의 입장객 톱 텐의 입장료 현황을 살펴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영국의 버킹엄궁전은 12만 1000원, 베르사유궁전은 3만 4000원, 중국의 자금성은 1만 2000원, 가장 저렴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니조성도 약 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지요.

궁궐 관람요금 한번 표시해 주시지요.

우리나라 궁궐 관람요금은 3000원이 최대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1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료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고민이 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에서 사람을 쓰고 그리고 보수·관리까지 하는 그것도 되는데 이것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계원 위원** 그래도 합리적인 입장료 인상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궁의 주변이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패스 같은 입장권을 계획해 보는 것, 즉 일종의 궁능유적 자유 입장권 이런 걸 좀 계획을 해서 해 보면 외국인들도 더 시설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더 많은 곳에 방문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그다음에 개성의 만월대 공동발굴 그리고 디지털 복원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수행해 온 남북 유산 교류협력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일단은 개성 만월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서 이제 중단 됐고요. 그 이후에는 디지털로 3년 동안 다시 복원했습니다마는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는 문화적으로 좀 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아예 이와 관련된 예산은 없더라고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거……

○**조계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향후 통일국가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이 문화로서 물꼬를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태봉국 철원성 등 DMZ 및 접경지역 공동조사, 금강산 구역 사찰, 문화유산 보존·복원사업 등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 북한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좀 진행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지금 미반영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의지는 있으나 통일부라든가 외교부와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문화유산 교류협력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에도 응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저희 캐데현, 케이팝 열풍,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국중박에도 사람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궁능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서울시 내 궁능의 방문객이 부쩍 늘었는데요.

PPT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년간 방문객 인원을 확인한 결과 창경궁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비해서 2배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덕수궁은 2.2배, 창덕궁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2021년에 100만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650만, 6배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방문객의 증가는 우리 문화를 많이 알리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계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일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그래서 더욱더 궁능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궁능을 보존·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난 5년 전이나 현재나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객 증가폭이 6배 늘어났다는 경복궁 말씀드렸는데요. 총원을 보면 21년에 130명이었는데 25년에 136명으로 6명 늘었습니다. 방문객은 6배 늘었는데 인원은 6명밖에 안 늘었습니다. 노동 강도와 크게 증가했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관리 인원을 충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지난 연휴 때만 해도 방문객이 141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풍인데요. 문제는 이것을 같이, 우리 안전원 같은, 그리고 지켜야 할 분들이 지금 거의 오버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직종별로 조금 더 보면요 전화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도 1명이었는데 작년에도 1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상담 건수 보면 4000건이 증가했어요. 인원 똑같은데 4000건 증가하면 하루에 350건 전화를 담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인원 확대해야 문화강국 위상 지킬 수 있다고 보고요.

공무직 노동자들 처우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유산청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 얼마 인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200만 원 좀 넘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알기로는 195만 5480원입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니까 200만 원……

○**손솔 위원** 이 기본급에 식대가 산입되어 있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산청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문화체육부 산하기관에 비해 많게는 27만 원, 통상 15만 원가량이 적습니다. 적어도 문체부 산하기관만큼의 급여 수준은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번에 3.8% 정도는 기본급을 인상을 시켰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기재부랑 당연히 협의는 하셔야겠지만 기재부 공무직도 기본급이 210만 원입니다. 유산청 소속이 그 기준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은 청장님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다음은 미군기지 내에 우리 문화유산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사례들이 이전부터 좀 있었는데요.

PPT 보여 줄 수 있을까요?

PPT 보여 주시면요, 지금 있는 게 2010년 대구, 2013년 의정부 미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화유산 훼손 사례입니다. 이게 당시에도 훼손이 있었다 이런 게 보도는 있었지만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저렇게 색이 없던 것에 색을 다 칠해 뒀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조치를 해서 색을 다시 없애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10여 년 정도 지난 사안이지만 우리 문화주권에 관한 것이니까 꼭 신경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용산 미군부대 캠프 코이너 내의 문화유산 중에 일성관지 포탄형 기념비라는 것 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곳이 일본 병영이 있었던 곳이어서 부대 성격을 상징하는 포탄형으로 기념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제국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교육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포탄형 기념비의 관리 주체가 원래 유산청에서는 주한미군이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게 관리 주체를 줬다고 했는데 미군기지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그런데 공간 점유로 가진 이 관리 주체 권한이 어떠한 절차가 따로 없이 미대사관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대사

관은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우리 소유의 유산 관리물이 미군에서 미대사관으로 이관된 과정을 오히려 통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알거나 허용, 변경 신청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 포탄형 기념물이 그래도 미대사관과 협의해서 현재 저희들한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받아서 교육……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솔 위원** 관리 주체를 옮기기로 한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관리 주체를 옮겨 가지고 교육 자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손솔 위원** 관리 주체를 옮기기로 지금 협의가 된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현재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관리 주체를 바꾸는……

○**국가유산청장 허민** 최근 일이라서요. 미국대사관이 거기 들어간다고 옆으로 지금 옮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옮겨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주체를 주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협의 중인 상황이나 이후에 이런 것들 저희 의원실에 상황을 알려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재필 본부장님 앞으로……

오전 질의에 앞서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종묘 차담회 그리고 영녕전 신설 개방, 대통령실 공식적인 행사라고 지시받았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저는 대통령실 행사라고 이해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공식 행사라고 지시받았습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공식행사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차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사실 연락이 왔는데……

○**임오경 위원**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전체적으로 저한테 구두로 연락이 왔고……

○**임오경 위원** 구두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셨다?

제가 이재필 본부장님 어디 쪽에 있다가 이렇게 왔나라고 봤더니 국가무형유산과 과장을 하셨더라고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2023년에?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임오경 위원 그때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 1차, 2차, 3차 그때도 서류 다 은폐하셨지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것도 질의할 것인데 그때도 서류 은폐하시고 예산도 하물며 다른 국가유산진흥원 예산까지 가져다가 3차에서는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거 김건희 여사, 최웅천 청장 다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료는 은폐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지 않았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결과보고서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재필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무형과 과장으로 계셨었는데 바로 1년 만에 궁능유적본부장으로 임명되셨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임오경 위원 초고속 승진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증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계셨지요?

다시 묻습니다.

마크 로스코 자녀들이 방문한다는 것 알고 계셨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그분들이 와서 차담회 한다라는 것 들었지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니, 저는 그해 9월 달 행사 시즌에는 전혀 사실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그해 12월 달에 JTBC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일체 몰랐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진짜 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를 관리하는 최고의 리더가…… 아니, 누가 와서 누가 차담회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진짜 언성을 안 높이고 싶은데 지금 답변에 있어서 언성을 높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위원님, 저도 사실은……

○임오경 위원 아니,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국가행사라고…… 보고 자료 하나도 없고 남기지도 않고……

아니,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국가행사라고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는 겁니까? 국가행사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신수진 문체비서관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국가행사라고? 아니면 최웅천 청장이 ‘국가행사니까 개방하시오’ 이랬어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처음에 연락 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알았는데 저는 사실 JTBC……

○임오경 위원 연락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문체비서관실에서 연락이 왔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개인적인 행사로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었고 그쪽에서…… 당연하게 대통령실 행사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라고 알아들었는데, 대통령 행사에서 누구누

구누구 참여한다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행사라고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행사에 누구누구누구가 참여한다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준비할 것 아닙니까.

망묘루에다가 냉장고도 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차담회 한 번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시원한 뭐를 마시고 싶어서 냉장고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청소 한 번 제대로 안 했는데 갑자기 들기름 모포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하고 영녕전 신실 개방을 위해서 1실에서부터 4실까지 청소 지시까지 한 것 자료 다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1실만 시켰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1실에서 4실까지 청소시키고 1실만 개방했잖아요.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그 안에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배석한 사람 2명 더 있지요? 그런데 아까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는? 2명 배석한 사람 있지요?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2명 더 참석한 사람, 종교인입니다. 제가 받은 제보로는 무속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저는 사실 제가 외국인 2명을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외국인 두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제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외국인은 당연히 두 사람이 왔고요. 통역관도 있었고요 그 외에 두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본 사람들도 다 있는데, 본부장님은 직접 다 같이 걸어 다니면서 다 안내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아니, 외국인……

○**임오경 위원** 그 뒤쪽으로 따라와서 같이 걸어 들어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이 무속인이랍니다. 종교인인데 무속인이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어쨌든 제가 인지하는 인원은 외국인 2명을 전체적으로 영녕전에서 망묘루까지 안내를 했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2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인을……

○**임오경 위원** 병산서원 못질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기소유예 받았고요. 경복궁 낙서 사건으로 징역 최대 2년, 교사범 징역 8년 나왔습니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녕전, 망묘루 차담회 이것 사적 사용은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에 본부장님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특검 조사 중에 있지만 감사원 감사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더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신속하게 하셔서 그거 우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특검은 특검대로, 망묘루만 특검에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녕전 건 신설 개방까지도 투 트랙으로 그거 다 포함해서 아마 특검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결과가 저도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런…… 개방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을 마음대로 그렇게 사적 사용한 것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요. 결과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까도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특검과 법적인 거는 법적인 거대로 하되 국가유산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제가 계속 앞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 좀 화가 날 정도예요. 국가유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이걸 분명히 자기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한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필 본부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 **궁능유적본부장 이재필** 예.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청장님 오전에 마무리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임명 당시 7월 13일경 현지에 있었던 유네스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가 임명을 했을까라고 여쭤더니 처음에는 아마 용산에서 이 상황을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유산청장이 세계유산 일만 하는 게 아니기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자칫 우리 부산 총회 유치나 반구대 암각화 등재나 그다음에 중요한 걸 유치하려 출장 나가 있는 현지 수장을 없애 버리는, 국제적 망신이나 이런 거를 다 용인해도 좋고 유산청장님 임명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임명 발표를 했다가 이런저런 혼선이 생기니까 한 반나절 지나고 나서 현지에 있는 유산청장은 임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임 유산청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참 재미난 발표를 용산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산청장은 세계유산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 마무리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때 일요일 날 발표하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명령에 대한 이야

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유산……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 주셨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니, 제가 거기 양해를 구했습니다, 비서관에게.

○박정하 위원 그런 말씀 주실 줄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장 허민 왜냐하면 현재 지금 파리에 가서 세계유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을 다 수행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 당시의 인사비서관……

○박정하 위원 인사비서관?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그랬더니 그게 수용이 돼서 만나질 후에……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제가 늦게 발령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임기 시작이 그랬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정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불가피하게 다 받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공직자의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중국 얘기 마저 할게요.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용두산 발해 왕실 묘지, 이거는 2004년도에 중국이 발견을 했는데 여태 발표를 안 하다가 지금 그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발해 3대 왕인 문왕의 황후 효의황후 그리고 9대 왕 간왕의 황후 순목황후의 무덤과 묘비 자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중국이 또다시 2004년도에 했던 것처럼 광개토대왕비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자기네 유산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용두산 묘지는 중화민족의 역사를 사실로 증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알고 계셨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들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듣고 계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심각하게. 마저 더 여쭐게요. 심각하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그랬더니 정치와 역사문화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2004년도에는 그냥 어 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만약에 중국이 또다시 이 문화재를, 우리 문화재를, 발해의 문화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한다면, 그래 보이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때 당시, 2004년도 당시 문화재청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저지하거나 반대 의사를 제기할까요? 이게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국제적으로 주

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장님, 그런 의지나 방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역사 왜곡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과거 역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반드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지금 동북아역사재단도 있지만 학술대회도 있고 포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바로잡기, 다시 그런 문제는……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문화를 이해한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학술적인 의미로 해서 발해의 잘못된 것, 과거에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박정하 위원** 학술적으로요? 학술적으로 외쳐 봐야 뭐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학술적으로 보니까, 이 발해 문화와 관련해서 학술적으로 점검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난 5년간 최근에 학술 관련해서 조사나 현황에 대해서 용역을 내거나 아니면 뭐해 봤던 흔적이 없어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게 다예요. 합쳐야 1억도 채 안 될 걸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정치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냥 학술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이게 끝나나요? 그러면 중국에서 ‘아니야. 이건 우리 거야’라고 발표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학술적으로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해유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서도 내고 학술세미나도 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가적인 자존심도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의 역사를, 동북삼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정치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먼저 대처하고 유네스코와 함께하면서 이런 갈등 유산으로서 풀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정하 위원** 청장님 말씀이 제가 들을 때는 너무 물려요. 그러니까 종감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중국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가질의 3분을 하고 꼭 필요한 위원님들은 재질의를 한 번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아마 국가유산청장님께서 볼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2시간이 훨씬 넘어서 잠깐 10분간만 휴식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국가유산진흥원장님, 반대편으로 나와 주십시오.

올해 5월에 취임하셨나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긴장되셨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배현진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청한 이유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국가유산 1등 흥보 유튜브 채널 K-헤리티지(k-heritage)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배현진 위원 제가 대단히 놀랐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채널을 봤는데 300만 뷔, 500만 뷔 이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문체부 산하 각급 기관들이 유튜브 채널 다 만들었는데 지지부진하고 쓸데없이 예산 낭비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채널이 우리 기관을 통해 운영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랐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 봤더니 22년도에 아마 진흥원 내부의 팀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듣고, 지난 최웅천 청장님이 이것을 또 팬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굉장히 독려해서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제가 신임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하는 것은 진흥원 관계된 식구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독려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혹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니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지금 19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배현진 위원 구독자 190만이지요? 우리가 국가기관 채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뷔 누가 보는가를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이 다 방문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9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 배현진 위원 어떻게 제작하고 있습니까?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저희 자체 제작도 하고요 외주도 주고 있고.

다만 저희가 자체 방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제작하고 있지요?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 배현진 위원 제가 영상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무형유산 보유자의 장구 만들기 ASMR 영상입니다. 이 장구 만드는 영상을 틀어놓고 밤에 잠자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밌지요? 1년 만에 조회수 250만을 기록해서 외국인들 최애 영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고맙습니다.

○ 배현진 위원 청장님,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더 북돋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재단에서 뮤즈(MU:DS)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형인 우리의 상품을 세계적으로 처음 유행시킨 어떤 기발한 기획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산청 산하의 K-헤리티지 유튜브는 대단히 우리 키워야 되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 배현진 위원 이따가 3분을 좀 당겨 써도 괜찮겠습니까, 추가질의 안 하고?

○ 위원장 김교홍 3분? 3분 안 하기로 했는데?

○ 배현진 위원 좋은 거니까.

22년부터 유산청과 진흥원이 100만 구독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품질 영상을 외국인들에게 잘 알리고 히트 상품으로 키워 냈습니다.

이 상품을 주력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지금……

○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주문화유산연구소, 완주문화유산연구소, 무형유산원 등 유산청 산하에서만 11개 기관들이 다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노력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제가 다 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잘나가는 어떤 부분으로 다 같이 통합을 해서 더 영리하고 지혜롭게 운영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선택과 집중 말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요즘 너무 폭발적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 배현진 위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우리가 뭔가 더 국가적으로나 기관이 이득을 얻어야 될 방향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 채널 만드는 데 수장과 관리자, 인사 법무 담당자까지 다 같이 여기에 유튜브 만드는 데 서로 겹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겠지요, 업무 로드(load)가 심해서?

청장님, 신경 쓰고 이런 독려하는 부분에는 지원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유산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래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유산청 발전방안과 우리가 해야 될 굿즈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검토했고요. K-헤리티지 100조 시장에 대해서도 연구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실은 국가유산청이 만드는 굿즈도 대단히 품질이 좋거든요. 제가 그렇지만, 우리 박물관 재단에서 뮤즈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 히트시키고 있지요? 그러니까 각각이 주력해야 될 분야를 잘 인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배현진 위원** 이 190만 구독자, 500만 뷰의 신화는 불과 3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조금 더 지원하고 집중한다면 저는 더 큰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산청 산하의 지금 저 뒤에 많은 기관장들이 있으신데요, 그 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는 그릇을 청장님께서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막 자잘하게 있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리고 지혜를 좀 많이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지혜를 얻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제가 그냥 국감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넘어가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 계획에 관해서도 종감 때까지 대략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잘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특히 목조문화유산 이게 지금 화재에 약하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지난번에 고운사 불타는 것 잘 보셨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한 번 불이 나서 1000년의 시간이 사라진다, 이건 진짜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더더구나 이거 복구한다고 하는데 이미 불타고 사라진 게 원형 복구 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에 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막이라든가 방염포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목조의 약함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무엇보다도 긴급대응이 필요하다.

○**민형배 위원** 아시는 것처럼 해인사 장경판전도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유인 경우에,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기관, 단체일 수도 있지만—이런 경우에 강제 규정이 없어서, 보험의 경우에 강제 규정이 없고 특히 법정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법정 소방시설은 의무설치 규정이거든요. 이거 점검 다 해 보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더니 약간 국보는 100% 다 돼 있는 데요 소방설비가, 보물이 지금 약 87% 됐는데 현재 공사 추진 중인 곳이 있거든요.

○**민형배 위원** 제가 문제 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2027년까지 모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사이에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민형배 위원** 2027년이면 앞으로 2년도 더 남았는데 이거 구체적인 대책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오늘 무형유산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캐데몬 너무 잘 아시는데요.

‘갓일’이라고 아시지요, 아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던데,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 종목이 25개나 되고요, 보유자가 전부 다 4명 이하고요. 그런 종목이 4개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연세가 그렇게 많으세요들. 그러니까 전승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거지요. 전통장 94세, 발탈 91세, 편종·편경 악기장 90세, 고령화 때문에 전승 기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에 찬 무형유산을 국가급보호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민형배 위원** 긴급보호 무형유산.

그런데 아예 보유자 없는 곳도 있어요, 아예.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이게 바디장 같은 경우는 벌써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나 지났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령에, 끊기고 있는데, 이거?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거나 그다음에 명예보유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우리 회의를 한 결과에서도 우리 아이디어는 현재 전통문화대학에 정말 특화 사관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그 대학에서, 사관학교에서 국내.....

○**민형배 위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런 방법을 찾으십시오마는 예산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예산. 예산이 2024년,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대폭 줄었어요. 639억에서 543억으로 줄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예산이 계속 그동안 전체 예산 중에

2%까지 가 보자고 했는데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1.2%까지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여러 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맥이 끊기지 않도록, 국내에도 해외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청장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방염포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유산청에서 문화유산 화재 피해를 막을 방염포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방염포는 저희들 보유보다는 사찰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염포도 너무 두꺼워 가지고 이것들을 에워싸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남은 것도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경북지역 산불 때는 방염포 보유분이 없어서 부랴부랴 구입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은희 위원** 방염포를 운영하는 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화재 이후에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알고 있으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화재 이후에 매뉴얼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협행법상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옥외소화전과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국가유산 몇 %인지 아세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보는 대부분 다 돼 있고요. 나머지……

○**조은희 위원** 10%가 넘게 미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염포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소방설비도 미비한 상황에서 문화유산 방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이 2017년에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방재 대책 연구도 2020년에야 처음으로 발주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가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늦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산청이 뒤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꼭 명심하겠습니다.

○ **조은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KBS 드라마 촬영팀이 못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알고 있습니다.

○ **조은희 위원** 안동시가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십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지금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했지요.

○ **조은희 위원** 검찰이 지난 7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건데요. 유산청에서 안동시와는 별개로 고발 조치할 의향 없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안동시하고는 몇 번 저희들이 협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소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은희 위원** 저는 별도로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청의 문화유산 관리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요 최근 5년간 문화유산이 많이 몰려 있는 자체 여덟 곳에 문화유산 촬영 신청 건수가 총 1420건인데요. 촬영 신청 모두 허가해 줬습니다. 문제는 촬영의 명확한 기준이나……

저도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모든 촬영이 기준이나 절차 없이 자체 재량에 따라 허가됐다는 점인데요. 표준화된 심사기준도 안전점검 절차도 사후 관리체계도 없이 묻지마 허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유산청이 그래서 올해 3월에 뒤늦게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이것 사후약방문입니다. 문화유산 지정권자는 유산청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뒤늦게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세계적인 기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실해요.

지금 촬영할 때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고요. 그런데 프랑스 국립기념비센터 경우를 보면 촬영 과정에 담당 직원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규정돼 있고 다른 주요국 역시 비슷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촬영 허가, 절차, 사후 관리가 또 부재하면 제2·제3의 병산서원 사태·사건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촬영 허가가 자체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 3월 6일 날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조은희 위원** 그 얘기 제가 했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제 얘기는 유산청이 지정하고 그러는데 촬영 허가는 자체장이 해 주는데 자체장이 아니고 유산청이 촬영 허가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촬영 허가를 내줄 때 유산청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 얘기를, 강화된 절차 얘기를 묻는데 똑같이 그냥 죽 이 질문이나 저 질문이나 똑같이 답변 읽으시면 제가 질문하는 게 좀……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같이 다녀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명시해 놨거든요. 그리고 서약서 제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은희 위원**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유산청에 보고해서 하거나 아니면 유산청이 직접 허가를 하거나 이런 더 적극적인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쭈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런 규정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서약서 제출이나 안전요원 배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더 만들고 저희들이 직접 또 같이 감시·감독하는 그런 부분을 더 만들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청장님, 유산발굴조사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대책 중의 하나가 현장의 특성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일반 건설 현장의 공사 특성은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유산발굴 현장은 위에서 밑으로 파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일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안전교육을 받는데 일반 건설 현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 이러한 어떤 교육의 틈새 이런 것들이 좀 안전의식 부실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 사이에 유산발굴 현장에서 10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열두 분이 중경상을 입어서 매년 1명꼴로 중대한 사망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를 봤더니 총 7건의 사고가 굴착 쟁 붕괴로 대부분의 사고가 사진처럼 아래로 파 내려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의 교육을 보면 유산청 위탁을 받은 한국문화유산협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안전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받더라도 우리 유산발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수현 위원**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렇게 파 내려가는 현장의 조사와 쌓아 올라가는 현장의 조사 이 특성에 맞는 조사의 차이 이것을 좀 더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곳에 착안이 돼 보이더라고요.

현재 전체 5명 중에 1명 정도는 저 통계에 의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분들이 유산발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정도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혹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도개선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정말 사고가 나고 또 사망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변명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아까 트렌치 굴착 갱에서 제일로 많이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각도를 따로 줄이도록 의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건설회사에다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트렌치 할 때 보면 빨리 하기 위해서 각도를 좀 급하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경사각도를 완만하게 하면서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리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업무정지 3개월까지도 했습니다만 그 법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러한 것을 상시 관리 감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무자비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시고 당연히 하시는데요. 이 안전교육을 하는 곳이 지금 두 군데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교육 현장은 유산발굴 현장과의 특성이 좀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래로 파 내려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건설 현장에서 쌓아 올라가는 이런 특성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원인을 보면 떨어진 데에 맞는 것 이러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파 내려가는 유산발굴 현장에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조금 논의하다 말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생안전 TF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사항에 맞춰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철저히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철저하게 더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승수 위원이랑 민형배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무형문화재 문제인데요. 보유자 인정조사를 10년 전에 하고 지금 1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고성농요 관련해 가지고 한 차례 예외적으로 인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인정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 동네야류가 한 번 있었구나.

그러니까 고성농요가 92년에 인정되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유네스코에 한국의 탈춤이 지정됐다고 해서 동네야류와 관련해 가지고 한 번 예외적으로 인정조사가 있었고 없었어요.

지금 문제는 아까 민형배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보유자 연령대가 80이에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전승교육사 연령대가 65세, 66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2페이지에 유산청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연하지 않는 보유자들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명예로 보내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 공연하고 활동할 수 있는 보유자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보유자가 다 1명이어야 돼요? 오광대 같은 경우나 탈춤이나 농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할에 있어서의 전문성도 확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유자가 고령이면 새롭게 보유자를 옮겨서 그 보유자 유고 시에 새로운 보유자가 가고 그리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유자의 영역을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특히 단체종목에 있어서는 심각하다 말이에요, 지금 보유자가 2명 있는 데가 2개, 3명 있는 데가 하나, 4명 있는 데가 하나, 이외에는 다 0명 또는 1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 안 들이고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인정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여전히 올 스텁시켜 놨던 게 그동안의 유산청의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기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온 12쪽을 보면 전승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강경환 총장님, 무형유산학과 교수가 누구예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교수가……

○**양문석 위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형유산학과 교수가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무형유산 관련 전공하신 분들이 교수로……

○**양문석 위원**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미술 공예라든지……

○**양문석 위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이런 사람들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아니십니다.

○**양문석 위원** 왜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학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문석 위원** 교수진을 구성할 때 실무를 하고 실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무형유산학과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전임교수는 없습니다마는 초빙교수라든지 전승교육사나 보유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는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무형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이 넓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종목만 33개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강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선수들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인재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청장님, 예술고등학교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화유산청이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예술고등학교에 무형유산과를 또 만들어 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입시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고민들을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놓은 전승 경로 확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때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통문화대학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강화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예술고등학교도 특별하게 MOU를 체결하든 해 가지고, 예술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무형문화학과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단절돼요. 무형문화학과의 특히 단체종목들 모든 하나하나가 다 굿즈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굿즈의 바다, 원형의 바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요. 전체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이 543억, 전체 유산청 예산 1조 3800억 중의 0.39%에 불과합니다. K-컬처는 그리고 K-헤리티지는 문화부의 뜻입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도 일부……

○**양문석 위원** 그러면 K-컬처의 하위개념인 K-헤리티지의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을 걸어야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외려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감액이 됐어요. 지난해는 639억인데 이번에는 543억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문화의 영역은 사람이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거면 유형보다는 무형이 더 중요하고 인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 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승 경로에 있어서도 학교 교육, 공교육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1차적인 고민이 돼야 되는데, 현재의 도제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도제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유자가 종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유자가 종신이면 그분들은 명예로 보내 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 현역들이 뛸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단절됐었을 때 바로 보완할 수 있는 2인 체제, 3인 체제, 4인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정책을 내면 여기에 예산이 따라 붙을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 올려 달라고 하면 누가 예산을 올려 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정말 감사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술고등학교도 있지만 전통문화대학교에 정말 기능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지금 보유자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양문석 위원** 청장님, 없는 것 만들지 말고요. 문화대학에 무형유산학과 있잖아요. 무형유산학과를 갖다가 단과대학으로 올려 가지고 크게 거기에서 판을 벌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없는 거를, 만들기 힘든 거를. 엄연히 대

학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김교홍 정리해 주시지요.

○양문석 위원 아니, 제가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배현진 위원이 여당인 것 같고—칭찬해 주는—제가 야당인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크게 이야기하고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지 화가 나서 하는 거는 아니다. 질의의 열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무형문화 영역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K-컬처, K-헤리티지 다 모래 위에 쌓는 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철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여기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합 정리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너무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끊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능사관학교 기능을 하겠다는 것은 학과를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학과에 약간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능하면 들어오자. 그래서 전 세계 지금 K-컬처, K-헤리티지 열풍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기능 보유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늘려야 되겠다.

사실 말씀에 저도 가슴 아픈 게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보유자가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대물림하고 또 옆에 사람이 들어오는 걸 겪는 걸 어려워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도 깨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필요하면 대학도 슬림화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기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저도 마지막으로 3분을 더 주시면……

○위원장 김교홍 이미 3분 넘었어요.

○양문석 위원 오늘 마지막.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그 재질의 3분을 이미 썼다고.

1분만 더 드리세요. 마무리로 1분.

마무리하세요.

○양문석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교홍 이미 3분을 썼다니까, 더.

.....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전승 경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수자, 전승자 그다음에 보유자들의 처우개선도 획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대부분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없이 평생 거기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사는 모습 그리고 존경받는 모습 그다음에 대우받는 모습을 봄아 그 밑에 전승자든 이수자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대장들이, 최고의 선수들이 비리비리 살면 그 밑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국가가 그 사람들을 비리비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제대로 대우받고 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유산청에서 밀어주고 키워 주

고 하면서 무형문화재가 계속해서 전승과 그다음에 이수자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전승자들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예산적으로 처우개선 문제를 검토해 달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집중적인 난타를 당하는 양문석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만들어서 의원실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압축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가유산청이 상대하는 여러 가지 관련 용역이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수 민간 업자들과의, 민간 연구단체와의 용역 계약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100여 건이 넘는 민간 계약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상당 부분이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한경쟁입찰을 많이 택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은 그나마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참가 자격도 제한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관행이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확보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한경쟁으로 진행되는 사업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게 많다고, 저희가 관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PPT에 보면 올해만 해도 벌써 57건이고요. 수의계약이 57건이고 전체의 27.8%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유산청이했던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벌써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50%를. 그리고 제한경쟁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사례도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수의계약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없지는 않겠지요. 분명히 있겠지만 원래 제한경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기본취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수의계약으로 바뀌는 이 과정들이…… 대개 또 답변 태도가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멘트가, 답변이 항상 그겁니다, ‘수행 가능한 업체가 없다’. 실제로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것은 약간 사안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

도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수의계약 비율은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전문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겠지만 과연 그런 부분에서 특정 업체와의 또 반복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국가유산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수의계약으로 계약방식 자체가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너무 편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정연욱 위원** 2015년 이후에 저희가 아는 한 업체와 일반경쟁 그다음에 수의계약 총 42건의 계약이 체결됐고요. 2020년에는 무려 11건이 집중적으로 이 업체에만 쓸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면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고 자꾸 이런 우리가 항간에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기일에 몰리게 되고 또 특정 업체에게 몰리게 되니까 자꾸 몰아주기식 계약이 반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E업체의 경우에 2020년에 유산청과 20건 계약을 했는데 올해 또 갑자기 8건이 더 체결된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한경쟁업체 입찰이라는 기본적인 취지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너무 편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위원님 지적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현재 10월 2일부터 저희들 시행을 시작했습니다마는 1억 이상에 대한 계약은 심사위원은 일단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그것도 다 외부인으로 한다. 그리고 먼저 인력풀을 전국에 공고를 해서 2배수 이상의 인력풀을 우리가 모집해서 추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했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내부의 분들도 심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걸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는 그렇게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준비한 게 많아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춘천 중도 문화유적지 관련해서 보충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형편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구라고 하지만, 유구가 돌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석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저렇게 그냥 비닐하우스 안에, 검은 차양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것도 10년째 저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향유 그리고 유산의 나눔에 있어서 저렇게 오랜 시간 비어 있는 것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종감 때 김준우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장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만 저는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장님 불러도 좋은 답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도 그렇고 3년을 유산청에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보면 유산청에서 플랜B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에 이렇게 맡겨 봤자 저는 종감 때 별다른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유산청이 또 1년 시간 줬습니다만 그 1년 시간 지나고 나면 다음 국감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지석묘들이었는데 한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유산청에서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음입니다.

충청·경기권의 해양유산 조사·발굴을 위한 선박 및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예산 관련된 질의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는 해상이 도로였지요. 배를 통해서 호남에서, 경상에서 그다음에 충청에서, 모든 문물이 서울로 들어올 때 이렇게, 한성으로 들어오거나 평양으로 들어갈 때 바다를 통해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난파선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대부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보물선이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충남 태안 대섬 해역에서 나왔던 고려 보물선이라는 곳에서는 유물이 거의 2만 5000점 정도가 배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이 외에도 인천 섬업별 그다음에 태안 파도리, 보령 삽시도 등 인근에서 많은 보물선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조사 수요는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한 수중유산 탐사용 선박 새나루호 한 척뿐입니다. 보십시오. 저거 3억 주고 만들었다는데 낚시 어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게 유산청에서, 지금 서해안에서 쓰고 있는 유일한 탐사선 선박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마저도 예산이 없어서 7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됐어요, 연 7600만 원 정도. 그래서 작년에 30일 쓰고 못 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탐사가 된다 하더라도 발굴용 선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충청·경기권 수중유산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배 보면 누가 국가의 탐사선이라고 보겠습니까? 예산 더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그 배를 타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기의 잠수사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본하고 베트남까지 가서 수중 발굴해 달라고 부탁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주셔서 노력해 주신다면 세계 최고의 수중발굴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내셔널 헤리티지, 국가유산이라고 하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혹시 스포츠유산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포츠 레거시라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스포츠 레거시요. 그런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이 스포츠 레거시 존재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인데요. 2027년도에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유치 예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준비 과정도 굉장히 미흡하고 정부에서 관심도 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치는 하기는 했지만 적자,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 같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의 리글리 필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투우장 그리고 브라질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이 이것들이 다 스포츠 레거시로 국가유산처럼 등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는 대한체육회 건물 그다음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이 만들어질 곳인데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박물관……

○진종오 위원 내년 9월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전 시대에 걸쳐서 한 200여 점의 전시물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영웅들이했던 유물들도 국가유물로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화면도 보실까요?

유네스코 등 국제협약에서 스포츠유산 보존의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승, 그리고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한 전승’, ‘전통·토착 게임·무용·스포츠는 보호·촉진되어야 된다’고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스포츠유산은 그 나라를 빛내는 또 하나의 국가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동의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우리 스포츠유산으로 해서 지금 엄복동 자전거 같은, 13건이 등록돼 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50년 미만이 되더라도 유산을 발굴해 가지고 선정하고 지정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신설됐다고, 만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유물이나 수영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철저하게 해서 국가등록유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기록유산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청장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서 2012년 설립 후에 국외 소재 한국 문화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환수해 오고 있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조계원 위원 현재까지 총 1288건에 2843점의 문화유산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유산 중에 중국으로부터 환수된 문화유산은 단 1건도 없더라고요. 무려 중국에 소재한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이 1만 4226점이나 되는데 단 1건도 반환을 못 했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반환 건수는 대부분 일본과 미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 반환이 이루어졌고요.

다음이요.

문화유산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환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거 좀 대안이 있습니까?

○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중국은 약간 폐쇄적이라서 정보 제공을 잘 안 해서, 저희들이 동북아재단과 MOU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공동 조사하겠다는 의결만 했지 중국하고 함께하는 것은 그 폐쇄성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조계원 위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문화유산 모니터링, 중국과 관련해서 해외 사무소도 없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모니터링 담당 직원은 단 1명입니다. 이 인원 모니터링입니다, 그것도. 이게 가능하겠…… 저는 문화유산 환수 노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우리 국내 문화유산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 조계원 위원 다음, 산불과 관련해서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유독 2025년에 산불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대폭 피해가 왔지요. 국가지정유산만 13건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유산이 23건, 유례없는 손실을 봤습니다.

다음이요.

다 아시다시피 고운사의 연수전, 가운루 등 안동의 중요한 여러 유산들 다 지금 소실되고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림청에서는 국가 문화유산 대책을, 이미 지침과 매뉴얼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와 산림 사이에 완충 공간

을 확보한다 그다음에 낙엽과 잡목 등 가연물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찰, 고택 등 목조 문화재 중심의 방화구역 조성을 산불피해 방지의 핵심 대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지켰을까요?

또 국가유산청에서도 25년 1월, 올해 1월 달 봄철 산불피해 방지대책에서도 안전선 및 방화선 정비 이걸 했더라고요, 이격 공간, 안전선이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이것만 확보됐어도 충분히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국가유산청은 지금껏 안전선, 이격 공간에 대한 방화선 정비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법안으로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제는 좀 제대로 안전 공간을 확보해서 산불피해에 문화유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최근에 단원고 4·16 아카이브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중이시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손솔 위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전 국민이 염원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 꼭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전 국민적인 바람과 염원 이런 게 있는 것들이 더 추가로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 드리는데요.

K-민주주의에 대한 기록들이 국가유산 지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부터 제 또래 친구들도 응원봉을 들고 나설 때 과거가 있었고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항쟁 기록 이런 것들이 국가유산 등재가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고 이어져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K-민주주의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응원봉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솔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화재 예방 관련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PPT에……

(영상자료를 보면)

조계원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문화유산과 이격 거리 관계 상관성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수종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엽수가 많으면 화재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환경 자체가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여서 문화재 유산 자체

에서 방지를 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조성에 대해서 폭넓게 접근하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이 침엽수 문제를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과 대책회의 구성해서 이것과 관련, 이격 거리 그리고 수종 변경, 이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결산심사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 여쭤봤었는데 여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이후에 사실은 성평등가족부 바뀌는 과정과 함께 새로운 장관님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전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 번 대화를 나눴는데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솔 위원** 관계기관 협의체를 꼭 구성을 해서, 이게 핑퐁 그냥 이야기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협의체가 좀 구성이 돼야 논의가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3분 당겨서 바로 하고 마감을.....

○**위원장 김교홍** 다 3분 쓰는 게 아닌데요, 꼭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손솔 위원** 예. 돌지 않고 이번에 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손솔 위원님 무조건 하게 해 주세요.

○**손솔 위원** 다들 하셨으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공무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 시설물관리원 관련된 것이 또 있거든요. 시설물관리원 담당 업무는 지금 가·나·다급 이렇게 분류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이 종합적인 관리 책임자, 나급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다급이 정비·미화·청소 등 경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임금으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현원이 부족해서 다급 인원이 나급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연유산국장님 계신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예.

○**손솔 위원** 대전 천연물기념센터 지휘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예.

○**손솔 위원** 대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노동자의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공무직 이시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해서 다급으로 채용이 됐는데 실제 업무는 경상 업무가 아니라 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급으로 채용돼서 나급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나급으로 승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알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내부 승급 제도가 없으니까 승급은 안 되고 퇴사하고 재입사를 해야 그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당사자께서 나급과 관련된 채용 계획이나 예산이 없는 것을 알고 되게 허탈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사해서 재입사하려고 하면 나급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나급 승급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 다급인데 나급으로 업무를 했던 것

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급 인원에게 나급 업무 지시한 것 규정 위반 맞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이 부분 말씀드리면 다급에서 나급 하는 부분들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솔 위원** 지금 승급 제도가 없는데요.

그런데 다급에게 나급 업무를 한 것은 위반이 맞지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예, 그렇……

○**손솔 위원** 그래서 임금 미지급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예.

○**손솔 위원** 대전센터 확인 꼭 해 주세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약간 말씀을 드리면 다급에서 나급 등급 상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자문 받아서 등급 상향할 계획이고요, 채용할 계획이고. 다만 급여 소급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법률자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어쨌든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는 계시니까 그것은 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자연유산국장 김동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승급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여서 이거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보근 차장님, 역사는 어떻게 재조명되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

(「문제가 어려워요」 하는 위원 있음)

○**임오경 위원** 어렵습니까?

기록에 의해서 역사가 재조명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역사는 기록되고 그 기록된 역사에 의해서 또 해석이 되고 그렇게……

○**임오경 위원** 그래 가지고 재조명하고 지금 시대가 패러다임에 의해서 변하면서 영상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면서 참 이 자료, 이 기록의 문제점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최보근 차장님께서는 문체부에서 오래 계셨던 사람 중의 한 분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임오경 위원**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자료 작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진짜 역

할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제출되는 자료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대한민국 미래 세대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남겨 줄 수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기록입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임오경 위원** 토씨 하나 틀려서도 안 됩니다. 자구 하나 틀려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에 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됐지만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는 진짜 이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관리·감독 잘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까 제가 또 질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2023년 3월, 4월, 5월에 있었던 청와대 상춘재·영빈관 등에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행사가 있었습니다. 1·2차 여기도 김건희 전 여사가, 김건희 씨가 참여를 했고 최웅천 청장도 참여한 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차 행사에서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결과 보고서에 참석 대상 보면 김건희와 청장은 쪽 빠져 있어요. 등재종목 대표 등 90여 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은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무용과 예산 24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3차 행사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최웅천 전 청장이 또한 참석 대상에서 빠지고, 쪽 빠져 있어요. 왜 이 결과 보고에서 김건희와 청장을 누락시켰을까요?

이귀영 원장님, 왜 누락시켰어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잘 모르겠어요?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가요?

○**국가유산진흥원장 이귀영** 예.

○**임오경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앉으십시오,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담당자님,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이 부분, 오늘은 진짜 두 번 다시 재발 방지 이것 없게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사안이지 다음부터는 진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라면 여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1분만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청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가 유물들을 환수했다라고 최웅천 전 청장은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바가지 쓰고 사오는 우리 국내 환수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편액의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꽈창용 대리님?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편액 이것 얼마입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가격은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임오경 위원** 말씀드릴 수 없다?

제가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편액의 경매 시가가 200만 엔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만 원. 그런데 최고급 외제차 1대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는 구매해 가지고 환수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급 외제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대충 계산 나오시지요? 2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최 외제값으로 지금 우리는 바가지 쓰고 사 오고 있어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경매에서 시작되는 시작가는 시작가이기 때문에 최종 가격이라고 볼 수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입 가격을 결정할 때 현지 조사라든가 또 서면 자문 또 평가……

○**임오경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이것 31억짜리인데, 31억 원에 우리가 이것 환수해 갖고 왔는데 이거 자문 결과 진품이더라도 2~3억밖에 안 합니다.

이거 중국 게임회사 라이엇 게임즈 후원으로 구입해서, 이거 편액이랑 구입해서 가져온 거지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예……

○**임오경 위원** 내 돈 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호갱 해도 되는 겁니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임오경 위원** 내 돈이라면 이런 걸로 이렇게 환수해 갖고 사 오겠어요, 바가지 써 가면서, 해외에서? 협상을 잘해서 사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마는 그게 내 돈 또 국비, 기부금이라고 해서 다르게 판단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앞으로 협상 잘해서 사 가지고 오세요, 바가지 쓰지 말고.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이해했고요. 하여튼 유념해서 협상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상의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환수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억짜리를 31억에 환수해 오는 게 맞는 겁니까? 2000만 원짜리로, 시가 2000만 원에 시작한 것을 갖다가 5억에서 8억으로 저희가 사 들여 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자랑하는 게 맞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위원님 말씀을 정말 따끔하게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3년 자료를 죽 보면서 굉장히 통탄할 일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런 부분 진짜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환수할 때도 제대로 된 환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 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연속유산이라는 개념 있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통일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일괄 유산을 연속유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APEC 하는 경주의 역사유적지, 고인돌 유적, 서원, 뭐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속유산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 슬라이드, 지금 연속유산으로 잠정목록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 올라가 있는 양주 화엄사지처럼 남한강변에 폐사지 유적지가 제법 있습니다.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이 있어요. 지금 양주의 화엄사지 유적이 굉장히 귀한 거고 유적적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연속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병합해서, 같이 묶어서 연속유산으로 하는 게 훨씬 등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중앙박물관장하시는 유홍준 관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여러 절차가 필요할 테지만 우선 학술연구도 필요하고 유네스코에 기 올려 놨던 것을 병합 심사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 **국가유산청장 허민** 제가 회암사지를 가서 직접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학술 가치가 과연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정말 폐사지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과연 될까라는 의문 속에서 질문했던 겁니다.

다만 그때 전문가들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다시 회의를 부쳤고요 또 유네스코에다가 정식으로 저희들이 편지 의뢰했습니다. 지금 예비 신청서를 냈더라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논의를 같이 좀 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협조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같이 계속 말씀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오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추가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재질의까지 사용했고요.

꼭 재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지요.

김승수 위원님 또 조계원 위원님, 또 있습니까? 두 분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조계원 위원님부터 해야겠네요, 순서가.

○조계원 위원 청장님, 지난 7월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곳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 유산에 대한 한국인 강제노역 문제는 끝내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원래 유네스코가 2015년 군함도를 등재할 당시 강제동원의 역사까지 포함한 전체 역사 를 보여 줄 것을 천명했고 그렇게 일본도 받아들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그것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안건을 제기했는데 일본이 또 부결시켰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현재는 단 하나의 의견도 홍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 강제노역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저희들이 따로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아까 손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강제 노역에 대해서 저희도 유산을 만들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내 보자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올해에도 사도광산 추모제가 있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조선 노동의 강제노역에 대해서 추도사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지요, 외교부에서?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올해도 추도식 행사가 열리는데 이에 대해서 추도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건 때문에 두 가지 트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원 하느냐 아니면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조계원 위원 우선은 추도식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일본의 아시오 광산과 다테야마 구로베 방재대국 일본의 모텔, 이것도 지금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조계원 위원 이곳 역시 강제노역이 있었던 곳이지요?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시오 광산은 한국인 노동자 약 2000여 명이 강제 동원됐고 다테야마 구로베 방재대국 여기는 1000여 명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러니까 지금 군함도라든가 사도광산도 권고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와, 특히 저희들이 한·아세안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요.

유네스코가 지금 일본의 재정 부담 때문에, 많은 재정 기여를 이유로 해서 일본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결코 일본에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유네스코가 이번 일본의 유산에 대해서 강제 노역의 그 기록들을 다시금 분명히 반영하고 또 반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방금 조계원 위원이 사도광산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9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가 불참했지요, 우리 측 대표들이?

왜 불참했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그건 이행 권고사항, 이행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김승수 위원 작년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우리 정부에 대한, 당시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했던 강유정 대변인은 내선 일치 외교, 매국 외교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었고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사도광산 문제가 굉장히 핫이슈였고 여기의 상당수 민주당 문체위원님들께서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사실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문제를 같이하면서, 유산청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간의 미미한 부분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김승수 위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청장이.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제회의에 사도광산 우려 사항 전달한 게 그게 다고 일본 정부의 이행 결과보고서가 오는 12월 달에 오면 그것 가지고 검토하겠다?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9월 추도식에 일본에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도사에도 여전히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진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 가면서 비난하셨던 분들이 올해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는 안 가는 걸로, 포기하자.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그냥 물러나 버리고, 강유정 지금 대통령 대변인은 ‘일본 역시도 국내 정치가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마치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작년에 비난했던 것하고 같은 논리 같으면 최악의 외교참사가 그대로 반복된 최최악의 외교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것 관련 비판 논평만 10개 이상을 냈던 민주당에서는 앞서 조계원 위원 외에 지금 한 분도 꿀 먹은 뒤처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은 작년과 올해 일관된 목소리를 냅니다. 작년 11월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올해 9월 달에 대해서는 ‘일본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 듯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간 겁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지금은 뭐 잘한 겁니까, 그렇게 대응을 안 한 것이? 청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한일 관계도 있지만 저희들은 한·아세안하고, 그때 당시 강제노역했던 그런 아세안하고 지금 연합체를 구성해서, 지금 내용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있는 일제 때 그 당시 강제노역을 했던 그 많은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해서 철저히 점사해서 이것 자체로만 가지고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만들고 해 가지고 또 항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11월 말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대회가 지금 파리에 있고요, 참석 예정인데 거기 가서도 내년에 세계유산위원회 할 때 의제로 채택해 달라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 정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1분 드려요.

○김승수 위원 작년에, 앞서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십시오. 작년에 김윤덕 위원이 국가유산청은 외교부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하는 기관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했을 때 작년에 유산청장은 동의했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외교부와 함께.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유산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추도식 때도 외교부가 주관했고 ‘저희보다는 외교부에서 잘하니까 그쪽에 문의하라’,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고 그립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 대응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은 말 그대로 국내외 우리 문화유산에 대

해서 관리하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외교부에 떠넘기면서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문체위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허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유산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에 대하여 법적 절차 위반, 관리 체계 부실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 침수 등 국가유산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생성형 AI의 국가유산 왜곡 문제 해결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관월당의 복원 계획 미비, 춘천 중도유적의 유물 보관 문제, 중도가자 보물 지정 심사 과정에서의 문제, 문화유산위원회의 겸직에 따른 영향력 행사 및 감독 실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유산의 기록 및 보존,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문청사기 세계유산 등재, 천연기념물 산양의 개체 증가를 위한 ASF 차단 울타리 제거, 면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다양한 정책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박정하 위원님, 손솔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답변을 꼭 잘해 주세요. 매번 국정감사나 우리 상임위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는 얘기가 위원님들의 엄청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차장님께서 책임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그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0월 20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민 청장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5인)

김교홍 김승수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손솔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정연욱 조계원 조은희 진종오

○청가 위원(1인)

김윤덕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이은복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운영지원과장 김용복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강경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임종덕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정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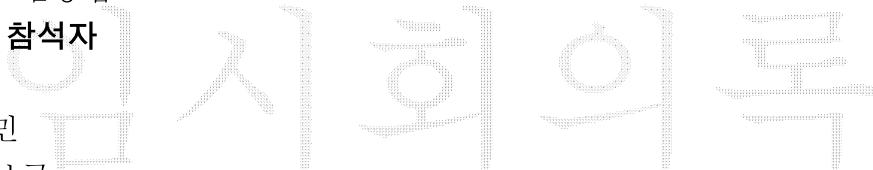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이재필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이귀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직무대리 곽창용

○**출석 증인**

곽기홍(솔브케이(주) 대표)

○**출석 참고인**

박후근(한국한복진흥원장)

임시회의록